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11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11 호 (156)

1958년 11월 15일

내 용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서적 해제 및 평론—

희천 공작 기계 공장 준공식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커다란 기쁨 속에서 희천 공작 기계 공장의 준공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공장의 준공식에 제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공장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동무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공장은 형제적 체코슬로바키야 인민의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건설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야 인민은 이 공장 건설을 위하여 많은 최신식 기계 설비들을 보내 주었으며 우수한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주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야 기술자들은 우리 로동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 로동자들에게 기술적 방조를 주었습니다.

전후 시기에 체코슬로바키야 인민은 이 공장 외에도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산 공구 공장, 덕천 자동차 공장 등의 건설에 많은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었습니다. 형제적 체코슬로바키야 인민이 우리에게 준 이 고귀한 원조는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공장의 준공식에 제하여 항상 우리 인민에게 따뜻한 형제적 원조를 주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야 인민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준공식에 참가한 스따니슬라브 끄고우쉐끄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코슬로바키야 대표단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이 공장 건설을 직접 도와 준 체코슬로바키야 기술자 동무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장의 건설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되였습니다.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장 건설에서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과 방대한 난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민 경제의 긴박한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 생산을 건설과 병행시키면서 많은 공작 기계들을 생산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장 건설에서 많은 로력 혁신자들이 나왔으며 수백 명의 국가 수훈자들이 배출되였습니다.

동무들의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오늘 희천 공작 기계 공장은 에쓰유 50형과 같은 최신식 공작 기계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대기계 공장으로 완성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시대에 우리 나라에는 기계 제작 공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비로소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시기에도 우리 당은 기계 공업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전후 시기에 더욱 큰 힘을 이 분야에 경주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는 기계 공업 발전의 기초를 이미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회천 공작 기계 공장의 준공은 예견성 있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승리의, 또 하나의 표현이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동지들! 오늘 기계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는 이미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속히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이 제기한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기술 혁명의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기계가 없이는 기술 혁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업과 농업 생산의 획기적인 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산간 벽지까지도 전기가 들어 가게 하며 공업에서 자동화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들과 화력 발전소도 건설할 것이며 수력, 화력, 풍력 심지어 조수의 힘까지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나 발전기를 걸어 놓고 전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많은 발전기와 각종 전기 기계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탄광과 광산들에서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각종 굴착기들과 버력 적재기들과 많은 수송 수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와 농촌에서 지금보다도 더 대규모적인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조립화하며 기계화하는 문제가 더욱 절실하며 기중기, 불도젤, 엑쓰까와또르 등 많은 건설 기계들을 대량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에 100만 정보의 관개 공사를 완수하며 흉풍을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발동기, 양수기, 뽐프들을 생산해야 합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우리 앞에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5년 내에 농촌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많은 농기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초보적으로 타산하여도 30,000—35,000대의 뜨락또르와 25,000—30,000대의 화물 자동차를 농촌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천 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였습니다. 이 많은 공장들에 기계를 공급한다면 이 모든 공장들이 다 현대적인 훌륭한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천 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량의 기계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도 종합적인 기계 공장을 가지고 지방 산업에 요구되는 기계들을 생산해 내야 합니다.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적 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기준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준을 창조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2—3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의 거대한 전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보적 기계화로부터 완전 기계화를 실시하며 또한 자동화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대중의 열성이 새로운 기술과 결부됨으로써만 이와 같이 생산에서 거대한 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혁명적인 우리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계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은 생산에서 새로운 기록들과 기적들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만 있으면 우리의 건설 사업은 모두다 순조롭게 펴워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이 기계 공업의 급속한 발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을 국내에서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중 소 기계들 뿐만 아니라 대형 기계들도 다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해 낼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이 풍부하며 야금 공업이 계속 발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공업의 기초도 축성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작 기계들을 잘 쓴다면 우리 나라에서 소요되는 어떤 기계든지 만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퇴치하고 대중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 공업 분야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억압하는 중요한 장애물은 기계에 대한 신비주의입니다.

대패로 나무를 깎는 것이나 선반으로 쇠를 깎는 것이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로동자들의 힘을 믿지 않고 책상 우에서 공론만 하면서 대담하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때에 신비주의자들은 자동차, 기중기, 랭동기, 디젤 엔진들은 새로운 설비 없이는 생산할 수 없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동자들 속에서 광범한 토의에 부친 결과 그들은 새로운 설비의 보충 없이 짧은 시일내에 이러한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계 신비주의자들은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 같은 대형 기계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동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담하게 그의 생산에 착수하였으며 벌써 시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천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은 명년에 3,000대의 화물 자동차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기양 기계 공장에서는 3,800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락원, 북중 기계 공장들에서는 수백대의 엑쓰까와또르, 불도젤들을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의 기계 공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신비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새로운 기계들을 대담하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계 공장을 더 많이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존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한 대의 기계도 놀리지 말아야 하며 잠시라도 기계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더욱 빨리 돌아 가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계를 잠시라도 놀리게 한다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의 속도를 그만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히 돌아야만 우리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소위 공칭 능력만 따지는 옳지 못한 경향은 도처에서 우리 로동자들의 창발적 로력에 의하여 분쇄되고 있습니다. 기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온갖 창발성과 재능과 정력을 남김 없이 발휘함으로써 낡은 기술 기준을 타파하고 부단히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를 쉬우지 말며 더 빨리 돌리기 위하여서는 기계를 애호하며 그것을 더욱 더 완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도록 투쟁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철을 절약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계 공장들에서 만드는 기계들은 아

직도 무겁고 두텁고 모양도 아직 좋지 못합니다. 기계 설비들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며 대당 철의 소요량을 결정적으로 감소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였습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의 창조적 열의는 더욱 더 앙양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계 공업 부문에 부과된 5개년 계획의 과제를 2년 이상 앞당겨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로동자 동무들도 명년에 예정하였던 계획보다 곤 3배나 더 많은 공작 기계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공작 기계는 기계 공업 발전의 기본 토대입니다.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들은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깎아 내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동무들이 만든 한 개의 기계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기계화하기 위하여 수백대 수천대의 기계를 깎아 낼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나라에 행복스러운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매일 자기'손으로 깎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이며 영예로운 일입니까! 동무들에 대한 전체 인민의 사랑과 존경은 매우 크며 동무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나는 동무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가 주는 과업을 더욱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조선 인민과 체코슬로바키야 인민간의 친선 단결 만세!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 만세!

10월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그날로부터 이미 41년이 지나 갔다.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이날을 기념한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10월이 열어 놓은 세계 혁명의 길, 인류 해방의 길에 이미 10억의 인민들이 튼튼히 들어 섰으며 해마다 달마다 점점 더 많은 인민들이 이 길을 따라 나서고 있다.

오늘 쏘련에서 10월의 위업은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에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수억만 인민들을 포괄하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또한 10월의 위업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하고 있다. 쏘련과 그리고 6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 쏘련을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 예속 국가 인민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신망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로부터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에는 경계선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일찌기 레닌은 지적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쏘련 하나 뿐이던 시기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적 체계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더구나 그러하다.

작년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축전과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미증유의 앙양을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이 단결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사상적 기초를 축성하였다.

모쓰크바 회의들에서 달성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되는 두 개의 선언은 지난 100년 간 특히는 10월 혁명 이후 40년 간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성과들과 경험들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운동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운동의 가일층의 단결 및 발전을 위한 기초로 되는 중요한 정치적 및 리론적 문제들을 해명하였다.

실로 모쓰크바 두 선언들은 현 시기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강령적 문헌으로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론적 및 실천적 발전에서의 거대한 새로운 리정표로 되고 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일치하며 우리 당의 앞으로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틀림 없이 이 문헌들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들의 자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할 것이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두 선언들은 거대한 동원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정치 리론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면서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고 있다.

모쓰크바 선언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이 운동 승리의 제 1차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매개 나라들에서의 당 대렬의 통일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국주의 반동들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들에서 공산당, 로동당 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공산당, 로동당들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서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미증유로 통일 단결되고 각국에서 공산당, 로동당들의 력량과 위신이 전례 없이 제고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멸망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금치 못하면서 공산주의 운동내의 수정주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력사의 변증법은 맑스주의의 리론적 승리가 맑스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맑스주의자로 가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레닌의 교시는 오늘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바로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수억만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고 부르죠아 사상이 결정적으로 파산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수정주의는 적들에게 사회주의 진영의 파괴를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투쟁은 각국당 대렬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년 모쓰크바 회의 이후, 특히 금년 5월에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이 발표된 이후 현대 수정주의는 전 세계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로부터 섬멸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의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 대렬에서 수정주의 분자들을 축출하고 당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더 한층 공고화하였다. 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중요한 승리로 되며 공산주의 운동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국제 수정주의 사조를 자기들의 반당적 목적에 리용하려던 최 창익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을 숙청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더욱 철옹성같이 강화하였는바 이는 오늘 우리 혁명의 급격한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오늘 세계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력량은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로써 더욱 튼튼히 무장되면서 10월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미증유의 속도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 제국주의는 그의 종국적 멸망을 향하여 날로 더욱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는》 것이 현 시기의 특징이라면 지난 1년 간의 특징은 동풍이 더욱 강화되고 서풍은 더욱 약화된 그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은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비할 수 없는 우월성과 결정적 우세를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뚜렷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최근 40년 간 쏘련의 공업 생산의 년 평균 장성 속도가 10.1%라면 같은 기간에 미국과 불란서는 3.2%, 영국은 1.9%였다. 쏘련의 공업 생산이 금년 상반년에 작년 동 기에 비하여 10.5% 장성하였다면 미국에서는 10.8% 감소되였다. 쏘련은 금년 상반년에 석탄을 1949년 1년 간에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이미 미국을 릉가하였으며 선철, 압연은 1950년 1년 간의 생산과 비등하게 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최근 7년 간에 강철, 선철, 철광, 석탄, 모직물, 신발 및 기타 생산의 절대적 장성량에 있어서도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릉가하고 있다. 1953년부터 1957년 기간에 쏘련에서 석유 생산의 년 평균 절대적 장성량은 1천 140만 톤인데 미국은 880만 톤이였다. 벌써 금년에 쏘련은 니켈, 크롬, 사탕무우, 사탕, 밀, 감자 등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 미국을 릉가하고 있다.

쏘련은 새 7개년 계획(1959—1965)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철광, 석탄, 쎄멘트, 모직물, 육류 및 우유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도 미국을 따라 잡고 앞서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흐루쑈브 동지는 《바로 이러한 템포로서 우리들은 장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 쏘베트적 볼쉐위크적 장성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약진 운동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쏘련의 새 7개년 계획이 완수되는 날에는 두 체계간의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비중은 결정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르죠아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더 상실하게 될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은 아직 로케트 려객기도, 대륙간 탄도 로케트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분야에 있어서나 우주권 정복에 있어서도 쏘련에 결정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쏘련에서는 오늘 인민 경제의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가 완성 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내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미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그 토대 우에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 나라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야 등은 그의 현저한 례로 된다.

중국에서는 경제, 정치 및 사상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바야흐로 대약진의 시기에 들어 섰다. 중국이 중요한 공업 제품 생산에 있어서 영국을 따라 잡고 앞서는 문제는 처음에 예견했던 15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해결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금년 상반년에 중국의 공업 생산은 작년 동 기에 비하여 34% 장성하였는데 영국에서는 2.1% 감소되였다. 금년의 중국 공업 생산 장성 템포는 작년에 비하여 60%, 농업은 90% 이상으로 예견되고 있다. 소맥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릉가하였으며 쏘련의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생산력은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7년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44%로 장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1.3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농업 협동화의 완전 승리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 알곡 생산은 1957년의 320만 톤으로부터 금년도에는 36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것은 1944년도에 비하여 120만 톤의 증가로 된다.

김 일성 동지가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보고에서 제시한 바 전력 200억 키로와트시, 석탄 2,500만 톤, 선철과 립철 400만 톤, 강철 300—350만 톤, 화학 비료 150—200만 톤, 쎄멘트 500만 톤, 어획고 100만 톤, 알곡 700만 톤에 도달할 데 대한 웅대한 강령적 과업은 앞으로 6—7년이 아니라 훨씬 앞당겨 실현할 확고한 과학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알곡 700만 톤은 가까운 1—2년 내에 돌파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는 그 때면 조선 인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대로 공급 받는 사회—공산주의 사회를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가까운 지평선 우에 바라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당 중앙 위원회 편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 달성하고 있는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경이적인 속도와 성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금년 상반년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공업 생산이 작년 동 기에 비하여 13% 증가하였다면 미국, 영국, 불란서, 서부 독일, 일본의 공업 생산은 평균 4.6%가 감소되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

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새로운 심각한 진동과 공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모쓰크바 선언의 결론이 전적으로 정확하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경제 공황의 서막은 미국에서 시작되였다. 오늘 미국의 많은 공업 부문에서 생산 능력의 최대 리용률은 40—50%에 불과하며 완전 실업자, 반 실업자 수는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지난 5월 20일 대자본가들이 모인 《미국 경제 동원 회의》 석상에서 《아무리 총명하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느 개인이건 어떤 집단이건 미국 경제가 어느 때부터 회복되여 상승할 것인가를 예언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비명을 올렸다.

자본주의 체계의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불경기와 공황은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생활 수준의 가일층의 저하와 실업의 홍수를 강요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파쑈화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한 토양으로 되고 있다. 불란서, 이태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카나다 등에서 광범한 로동자 대중은 독점 자본이 그들에게 질머지우는 경제 공황의 중하와 제국주의 정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후과들을 반대하여,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계속 파업, 시위 기타로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도발에서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구를 찾으려 하는 제국주의 지배층들은 계속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마는 이 정책은 세계의 도처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바와는 반대되는 비참한 결과에 부닥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고 그 위력이 급격히 장성되는 조건하에서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도 또한 그 무엇으로써도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써 장성하고 있는바 이것은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또 전쟁 도발을 위한 미국의 군비 경쟁은 그들의 경제적 난관에 더욱 더 파국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웽그리야와 애급에서의 미국과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에 뒤이어 최근 아랍 련합 공화국의 성립,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의 간섭의 치욕적인 결말, 대만 해협에서의 미제의 도발 책동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력한 반격 등등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특히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8월 유엔 비상 특별 총회에서 중근동으로부터의 자기 군대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에 스스로 찬성 투표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였는바 이것은 미제가 종래의 자기의 추종 국가들을 더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다. 오래 동안 미제의 세력권 내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가 오늘에는 미제를 반대하여 민족적 자주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전선으로 되였다.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의 수립은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바야흐로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점점 더 증대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의 멸망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자체에 고유한 모순의 표현에 불과하다.

현 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은 세계에서의 평화를 위한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은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의 극도로 되는 증오심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강력한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쟁 도발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반항이 더욱 높아 가는 것은 생활의 변증법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전쟁 도발 정책에 의하여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이것은 현 국제 정세에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미제는 비단 인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맹국들로부터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미제의 고립 상태에 대해서는 미국 지배층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은 10월의 사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바 이것은 오늘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로동 운동 및 전체 진보적 인류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고 있다. 현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새 전쟁 도발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옹호 투쟁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평화 옹호 투쟁의 향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특히 쏘련을 선두로 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 옹호 투쟁의 강력한 물질적 담보이며 불패의 성새이다.

오늘 평화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 특히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과 평화를 위한 그의 불굴의 투쟁에 의한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이 미증유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새 전쟁 방지의 온갖 수단들이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사실은 조선 인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극히 유리한 국제적 조건으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백방으로 리용하면서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기필코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써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위한 위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선 인민은 조선에서 새로운 긴장성을 조성하려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책동을 분쇄하며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다》 (김 일성).

오늘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와 사회 발전의 추세는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

《인간의 사유가 대상의 진리성을 파악했는가 하는 문제는 절대로 리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이다》라고 맑스는 말하였다. 오늘 위대한 10월 혁명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지 경험을 통하여 10월의 사상의 객관적 진리성과 그의 생활력을 더욱 더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사회주의적 업적은 조선 인민이 10월의 사상을 파악하였으며 10월 혁명이 개척한 영광스러운 길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성함으로써 10월의 사상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의 위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의 중등 및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의 의의

류 영 술

11월 1일부터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무료로 중등 의무 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장차 실시될 기술 의무 교육제에 의하여 더 높은 지식과 일정한 전문 기술을 소유할 광활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중등 의무 교육제 및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 력사에서 뿐만 아니라 동방 인민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이며 기술 의무 교육은 아직 전 세계에서도 그 례가 없는 일이다.

중등 의무 교육제와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를 고도로 발전된 민족 문화와 기술을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킬 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민족 문화의 자유로운 발전과 교육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들과 전체 인민들을 더 한층 고무 추동할 것이다.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교육과 생산과의 결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의 하나로 되며 우리 나라 교육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와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 준비는 우리 혁명의 긴절한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조건하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물질—생산적 기초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과업이 서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보고에서 전체 인민들 앞에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강령적 과업을 앞으로 6—7년이 아니라 4—5년 내로 앞당겨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강력한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의 락원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다.

이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로동 생산 능률을 비약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이것은 중요하게는 생산의 기술적 장비,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 로동의 합리적 조직, 그리고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로써 결정된다. 그러므로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을 가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기술 혁명을 전제로 한다.

기술 혁명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현대적 기술로써 생산을 재장비하며 생산 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문제이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로동자들의 로동을 현저히 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고도로 제고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찍부터 우리의 조건에서 가능한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에 대하여 교시하였으며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보고에서도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기술 혁명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여 있으며 실천되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운동은 날로 그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 기술로 재장비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요구된다. 또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되고 생산 공정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였다 하더라도 생산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역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이 요구된다. 일찌기 엥겔스는 《공산주의 원리》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현저히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및 화학적 수단들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역시 이 수단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인간들의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 기술로써 생산을 장비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문제와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계를 다룬다 하더라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차이에 의하여 생산 성과가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가는 곳마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수 많은 로동자들의 로력 성과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들이 기계에 정통하고 그들의 기술 수준이 다른 로동자들보다 높은 데 있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두 계단 높이는 것은 생산력을 한 계단, 두 계단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김 일성 동지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오직 새로운 기술을 소유하며 그것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만 새로운 기준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 경제의 부단하고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씩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대 생산의 과학적 원리는 복잡하다. 이 원리를 깊이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물리, 화학, 생물학, 수학 등 과목들에 대한 일정한 높이의 리론적 준비가 요구된다. 물리, 화학, 생물학, 수학 등등의 지식이 없이는 모든 생산의 과학적 기초를 깊이 리해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가 기술 혁명 수행,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전체 근로자들을 중등 교육 정도의 문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당면한 문화 혁명 수행에서의 주요 과업으로 되며 따라서 문화 혁명 수행은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전제로도 된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앞으로 전체 청년들이 현대 생산의 기초에 놓여 있는 자연의 법칙들에 관한 중등 교육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인바 이것은 그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된다.

그러나 초급 중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화학, 생물학 기타 과목의 지식만으로써는 현대 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을 생산에 충분히 준비시킬 수 없다. 현대 생산의 기본 원리를 충분히 리해하고 생산 도구들을 능숙하게 조종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에서 렬거한 기초 지식 이외에 생산에 관한 과학 즉 다종한 공학 또는 농학에 관한 일정한 깊이의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기계를 다루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일정한 숙련에 도달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청소년들을 충분히 생산에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기술 교육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초급 중학교까지의 기간에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까지 충분히 줄 수는 도저히 없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술 의무 교육을 주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기술 의무 교육제로 나가는 당의 교육 정책은 가장 정당한 것이다. 의무 교육이 만약

기술 의무 교육의 방향으로가 아니고 종전과 같은 고급 중학교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학교 졸업후 인차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교육 체계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개편은 청소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응한 능력 있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교양 높은 근로자들로 육성할 수 있는 전제로 되며 우리 나라 문화 혁명 및 기술 혁명 수행과 생산력 발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는 기초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그 자체만으로써는 학교들이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양성해 내리라고 기대하기는 곤난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학교들에서 실지로 어떻게 청소년들을 교육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낡은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서적상의 지식만을 지식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그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물론 서적상의 지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서적상의 지식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왜냐 하면 서적상의 지식만으로써는 그 지식을 생활과 실천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들에서의 교육은 과거 부르죠아 학교들에서와 같이 서적상의 지식만을 교조적으로 학생들에게 줄 수 없다. 학생들에게 쓸모 있고, 실천력이 있는 지식을 주기 위하여서는 교수와 생산과를 결부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술 학교, 전문 학교, 대학들의 교육은 반드시 이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멀리 미래를 내다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맑스는 《자본론》과 《고타 강령 비판》 기타 로작들에서 사회적 생산을 증가하며 인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 로동과 교육을 결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엥겔스는 《공산주의 원리》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로동과 교양은 결합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장성하는 후대들에게 다방면적인 기술 교육을 보장할 것이 예견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웨. 이. 레닌도 자기의 초기의 로작들에서부터 이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1897년 《인민주의적 몽상위 정화》란 론문에서 《젊은 세대의 학습과 생산적 로동을 결합함이 없이는 미래 사회의 리상을 생각할 수 없다》. 즉 《생산적 로동과 결부되지 않은 어떠한 학습 및 교양도, 병행적으로 학습 및 교양과 결부되지 않은 어떠한 생산적 로동도 현대 기술의 수준과 현재의 과학적 지식이 요구하는 높이에 이를 수 없다》 (전집, 조선문 판, 2권 2분책, 327—328페지)라고 말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합에 관한 학설은 극히 귀중하다. 복잡한 현대적 생산의 원리를 생산 로동과 결합하지 않고 서적만으로써 체득할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조선 로동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양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교시에 근거하여 교육과 생산과의 결합을 학교들 앞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바 특히 제 3차 당대회 결정은 학습과 생산을 긴밀히 련결시키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로써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급 학교들은 교육과 생산을 결부시킬 데 관한 당의 방침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는바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상한 품성이 형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보고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자기의 학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단련시켰으며 생산에 익숙하게 되였다》라고 학생들의 로력 투쟁을 높이 평가하였다.

오늘 학생들은 건설 사업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들에서 토끼를 치고 피마잠을 사육하며 기계를 제작하며 섬유를 뽑아내며 천을 짜내면서 학습하고 있다.

희천 고등 기계 전문 학교에서는 바이스,

진공 뽐뿌, 심지어 선반기까지 제작하고 있다. 지난 학년도에 이 학교에서 생산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에 달한다. 또 김책 공업 대학에서는 년산 1천 톤의 철을 생산하며 각종 기계를 제작하며 비료를 생산하며 천을 짜내고 있다.

오늘 우리 학교들은 교육과 생산과의 결부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맑스가 《림시 중앙 위원회 대표들에게 주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지시》(1864년)를 상기하게 된다. 그는 이 지시문에서 합리적인 사회 제도하에서는 매개 아동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자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명한 쏘베트 교육학자 아. 에쓰. 마까렌꼬의 교육 경험에서 우리는 교육과 생산과를 결합한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드쥐르진쓰끼 명칭 꼼무나에서 사진기 공장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하루 4시간 교수하고 4시간은 그들을 생산 로동에 참가시켰다.

생산 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유한 지식은 더욱 공고히 되며 그의 창조적 적용 능력이 배양되며 기술적 사고 능력이 발전한다. 그 뿐만 아니라 로동은 사람들을 단련시키며 그들에게 고귀한 사회주의적 도덕과 품성을 형성시켜 주며 그들의 의식을 개조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부의 정당성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학교에서 생산 로동을 광범히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교육과 생산 로동을 광범히 결합함으로써만 (물론 잘 조직됨이 필요하다) 생산 로동에 준비된 쓸모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금년부터 설치되는 기술 학교들에서는 50% 학습하고 50%는 생산 로동을 실시하는 원칙에서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할 뿐만 아니라 매년 1개월 반의 로력 동원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적극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육성해 낼 것이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육체 로동은 정신 로동에 착취 당하였으며 도시는 농촌을 착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착취 관계는 완전히 청산되였다. 그러나 아직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로동자들은 9년 간의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지’적인 기술적 사고를 하며 기계를 자기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기계의 관리자로 될 것이다.

또한 9년 간의 일반 교육과 농업 기술 교육을 받은 농민들은 락후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농촌 경리에 기계를 광범히 도입하며 협동 조합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며 공장과 제조소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문화 기관들을 건설하고 문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지’적 로동과 육체 로동의 차이는 점차 근절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본질적 차이도 점차 소멸되게 될 것이다.

전체 로동자, 농민들이 중등 이상의 일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전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나날이 기계를 완성하며 생산 공정들을 보다 높은 계단에서 기계화, 자동화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는 기술의 《신비성》을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며 기술을 전체 인민의 소유물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중등 의무 교육제 및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는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혁명 수행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의 비약적인 제고와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수년내로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우리들은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공고한 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다. 만일에 튼튼한 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다년간의 교육을 주려고 하여도 그것은 다만 공상에 불과하며 실현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학교를 운영하

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경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화국 북반부는 전후 3개년 계획과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통하여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으로 현저히 강화되였다.

둘째로 우리들은 많은 기술 전문 학교들을 운영해 본 풍부한 경험과 많은 기술자, 기능자들을 양성해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김책 공업 대학을 비롯한 많은 기술 대학들과 다수의 고등 및 중등 기술 전문 학교들 그리고 각종 기능 전수 학교들이 있는바 이 학교들의 운영 경험은 기술 학교 운영을 위한 물질적인 힘으로 되며 또 이미 양성된 기술자, 기능자들이 기술 학교 사업을 적극 방조하여 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많은 공장과 기업소들이 있는바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만 하더라도 천 여 개의 공장들이 새로 일어서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기술 학교를 설치하며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세째로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수 많은 교원들을 준비하여야 하는바 교원 문제 해결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미 많은 수의 교원을 양성해 냈다. 이들이 오늘 다른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 배, 세 배의 일을 할 것을 결의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오늘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수다한 교원 예비가 탐구되여 금년에 설치되는 약 200교의 기술 학교 교원 배치에는 문제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서는 양성반을 설치하고 기술 학교 교원들을 양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문화성이 옳게 사업을 조직만 한다면 교원을 짧은 기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네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비상한 열성은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인민들만 보더라도 명년도에 초중 졸업생들을 전부 기술 학교에 취학시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에서 렬거한 요인들은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를 원만히 하면서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성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투쟁이 없이 저절로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각급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은 인민 대중들 속에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 및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의 의의를 철저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케 하며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 시, 군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년차별로 되는 학교 발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며 학교 건설에서 반드시 지방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과 지방 실정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할 것이 요구된다.

학교의 물질적 시설을 훌륭히 꾸리는 문제는 기술 학교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금년부터 설치하는 기술 학교는 과거 우리가 실시하던 기술 보습반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며 그런 낮은 수준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기술 학교는 우리 나라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 교육의 학교이다. 그러므로 기술 학교에는 실험실, 실습 포전, 공작실, 실습 공장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물질적 토대를 완전히 구축하고서만 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물질적 토대는 개교전에 구축되여야 하며 개교후에 계속 그 토대를 공고 확장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들과의 긴밀한 유기적 련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 학교들에서 실습 공장, 실습 포전을 설치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실습하게 하며 또는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생산 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들의 기능,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막대한 각종 제품들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교원의 준비 및 그들의 자질 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아무리 교수 년한을 연장하고 우수한 교수 요강과 교과서가 작성되여 있다 하더라도 만일에 교원의 정치 사상성과 자질이 낮다면 그는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을 교육 교양할 수 없다.

일찌기 웨. 이. 레닌은 이태리 카프리 당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어떤 학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의 사상—정치적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또 례외없이 강사의 구성 여하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동무들, 동무들은 온갖 <통제>, 온갖 <지도>, 온갖 <교수 요강>, <규정> 등등——이러한 모든 것이 강사의 구성에 비하면 빈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전집, 15권, 조선문 판, 580페지).

그러므로 우리는 교원을 량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더 많은 교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교원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도는 여러 가지 있는바 즉 통신 교육, 강습, 자체 학습, 생산 실습 기타이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 향상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 학습이다. 아무리 많은 강습을 조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원들의 자체 학습을 방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과 교육 행정 기관들은 교원들의 자체 학습을 적극 장려하고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학교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서 그들의 리론 수준 제고와 함께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생산 로동에 대한 실천적 기능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앞에는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과업이 나서고 있다. 특히 근로 청년들이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과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야간 교육, 직장 교육 및 통신 교육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아직 인민 학교 졸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전체 청년들을 인민 학교 이상의 지식 수준에로 높이며,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체 청년들을 초중 이상의 일반 지식 수준에 도달케 하는 동시에 선진 기술로써 청년들을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인 숙망이였던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는 실시되였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기술 혁명 수행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의 과업이 서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4—5년 이내에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애국적 열성과 온갖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자.

농업 협동 조합의 통합은 우리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

홍 달 선

우리 나라 농촌들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완료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작은 규모의 조합들을 보다 큰 조합으로 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에서 생산력의 새로운 발전과 생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금번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 사업은 다만 그 규모를 확대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행정 구역 단위로 통합하였으며 또 소비 협동 조합, 신용 협동 조합, 농촌 진료소 등 리내의 일체 생산, 판매, 구매, 신용, 의료 등 단위들을 통합한 것이 특징인바 바로 여기에 또한 큰 정치 경제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소비, 류통 및 신용 부문도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조건에서 농업 생산은 소농 경리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여 어느 부문에서나 전면적 앙양이 일어났으며 농촌의 면모는 일신되고 있다.

농업 생산 장성은 알곡 문제의 해결에서 명확히 표현되였는바, 알곡 총 수확이 1957년도에는 320만 톤, 1958년에는 360만 톤 이상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해방전 최고 수확의 1.5배나 되는 것이다. 특히 금년에 들어 서면서 다수확 운동에서 벼, 옥수수, 목화, 밀 등을 모두 단위당 5—10배 이상 내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조합들의 경제적 토대가 강화되여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급진적으로 향상되였다. 새로운 생활은 농민들의 정신과 도덕적 풍모도 일신하였는바 그들의 사회주의 의식이 급속히 장성되여 가고 있다. 우리 당의 농촌 진지는 더욱 공고히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소농 경리에 비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며 농업 협동화에 관한 레닌적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의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에서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조합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오늘의 혁명의 대고조를 맞이하면서 그 구체적 목표와 수행 방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궐기한 근로 농민 대중의 무비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통하여 실생활에 구현될 것인바, 그 구체적 목표는 당이 제시한 바 수년내에 700만 톤의 알곡 생산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가장 유력한 수행 방도의 하나가 바로 논과 발에서의 관개 체계의 확립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을 위해서는 또한 선진적 집약 농법의 전면적 도입, 기계화 및 전기화, 가공 공업의 발전, 생산 및 문화 건설의 대대적인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혁명의 대고조는 농촌 경리 분야에 중요하고도 거대한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과업들의 해결을 위하여 오늘 무엇이 문제로 되고 있는가?

그것은 지난 시기에 농업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을 추동하던 생산 관계가 오늘의 비약적인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미 협애하여졌으며 이를 구속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농촌에는 매개 리내에 각각 자기들의 공동 소유를 가진 몇 개씩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있었으며 수개 리를 단위로 하는 농촌 소비 협동 조합 상점망이 포치되여 있었고 리를 단위로 하여 그 경제 활동 분야를 달리하는 신용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있었다. 농촌 리들에는 진료소망들도 포치되여 있었다.

그런데 농촌의 말단 행정 단위인 리 인민위원회는 농촌의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대한 지도를 사실상 원만히 보장할 수 없게 되였으며 농촌 소비 협동 조합, 신용 협동 조합 및 농촌 진료소들에 대한 행정적 지도도 잘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 생활의 주체는 농업 협동 조합에 있으며 상품 류통 및 신용 체계도, 진료소도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오늘에 와서는 결국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생산 및 문화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건설들은 지역적으로나 력량상으로나 종전의 농업 협동 조합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 들이다. 결국 종전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가 새로이 제기된 과업들의 해결을 위하여 너무나 협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 시기의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설정이 잘못된 것이였던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들의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 농촌에서 협동 경리 운영의 경험이 거의 없었고 지도 일'군들의 관리 수준이 어렸으며, 농촌 경리의 기술 수준이 낮았고 조합들의 경제적 토대가 아직 미약하였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도 아직 낮았던 사정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이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 문제 해결에서 점차적 장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1957년 말의 조합당 평균 33호가 57정보를 가진 것으로부터 1958년 3월 말에는 평균 80호가 130정보를 가진 조합들로 점차 장성하여 왔다. 이 기간에 우리 농업 생산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농업 협동 조합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취한 점차적 확대의 방침이 가장 정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사정은 새로워졌다. 농업 생산력에서 일대 약진이 요구되며 생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가 필요하며 농촌 진지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한 개 리내에 몇 개의 소규모 조합들이 병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긍정적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허다한 불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게 되였다. 그러면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가 작은 것이 어떻게 불리한가?

이제까지 매개 조합들은 평균 130정보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토양 조건의 적부(適否)에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자체로 알곡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조합과 조합과의 사이의 토지 경계도 아직은 정리되지 못하였으며 포전 필지들이 세분된채 완전히는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지 적작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될 수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공예 작물, 축산, 과수 재배, 잠업 기타 가공업 등 경리의 다각화는 해당 생산 단위들의 규모를 작게 하기 때문에 다각적 발전의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의 기술적 개조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발 관개 체계의 전면적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건설을

한 개 조합의 범위내에서 진행한다면 우선 수원 및 수로의 배치 등이 불가능하든가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되며 소요 자재 및 로력을 개별적 조합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다. 보다 광범위의 지역을 포괄할 때에라야만 발 관개 체계의 전면적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농촌의 기계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자체로 뜨락또르 기타 대기계들로써 장비되여야 할 것인바 종전의 조합 규모로써는 현대적 대기계들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오늘 우리 농기계 임경소들에서 뜨락또르 1대(15마력 환산)의 년간 작업량이 연경 면적으로 700정보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래년부터 대량적으로 생산될 국산 뜨락또르는 더 큰 작업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바 종전의 조합 규모로써는 한 개 조합이 국산 뜨락또르 1대의 능력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할 것이다. 또 종전의 조합 규모는 1대의 화물 자동차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어서도 협애한 것이다.

현대적 농업 기계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십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분되고 고저가 많은 농로의 필지들을 통합 확장하며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이에는 반드시 조합들의 통합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종전의 소규모 조합들에서는 조합원들의 로력 원천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적재를 적소에 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내 매개 생산 단위들에 배분된 로력들이 협업이 가지는 우월성을 충분히 리용할 수도 없는 것이였다.

이 모든 사정은 종전의 조합 규모가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그 발전을 저애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오늘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단위로 하여 생산적 및 문화적 건설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매개 조합들은 자기 조합의 공동 축사, 잠실, 창고, 작업장들과 함께 구락부, 민주 선전실, 영화관, 탁아소, 유치원, 리발소, 재봉소 등등까지도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 같이 한 개 리내에 있는 몇 개 조합들이 모두 이상과 같은 생산적 및 문화적 건설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면 허다한 불필요한 건물들이 분산 중복되여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 및 로력상의 랑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종래의 소규모 조합들의 불리성은 또 협동 조합들에 관리 간부들이 부족하지 않게 배치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농촌 경리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조합 사업을 원만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하고 견실한 간부들을 매개 조합들에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그러한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또 리적 범위내에서도 자연적 조건에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주민 구성도 역시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우기 기술 수준이 종전과 같이 낮았던 조건에서 한 개 리내에서의 조합과 조합간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조합원들의 력량이라는 주체적 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조합과 조합간의 경제 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조합원들 간의 생활 형편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응당 해결되여야 할 모순의 한 측면이였다. 이러한 모순도 종전의 협애한 조합 규모 내부에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 개 리내에 농촌에서의 기본 생산 단위인 농업 협동 조합들이 몇 개로 분립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류통 및 신용 부면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 단위와는 별개 단위로 다른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가 형성되여 있는 착잡한 형편은 각종 경제 단위들의 활동 범위와 기능을 제약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리로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경제 단위들이 리적 범위에서 단일적 소유 관계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기존 생산 관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말단 행정 단위인 리 인민 위원회가 농업 생산을 비롯한 경제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것도 해결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의 기존 규모가 농업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저애하며 생산 및 문화 건설에서 막대한 랑비를 초래하며 비생산 관리 로력을 충분하게 지출하면서도 당의 농촌 진지의 가일층의 강화를 저애하며, 동일 리내의 조합들 간의 경제 발전의 차이와 조합원들 호상간의 생활 수준상 차이에서 오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게 하며, 리내의 사회주의 경제 형태들 호상간의 발전을 제약하게 되였다는 일련의 사정들은 리적 단위로 조합들을 통합하는 것이 합법칙적인 요구이며 주객관적으로 성숙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 자체가 이러한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기존 조합들의 통합에 의하여 이상과 같은 모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협동 조합들의 통합에 의하여 이 모순들을 해결할 모든 조건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력사는 비록 짧으나 지난 기간 협동화 운동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리적 범위에서 볼 때에는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실무적으로 능숙한 간부대렬이 준비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합들은 자체의 경제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면한 기술, 문화 혁명을 능히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전체 조합원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 수요되는 일체 공업 생산품들을 보장할 충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은 또한 이를 보장할 데 대한 결의로 충만되여 있다. 그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전면적인 관개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수요되는 철재, 쎄멘트, 목재 등 건재를 비롯하여 각종 형의 건설 기계와 설비들, 전동기, 각종 발동기, 양수기, 호스, 운수 기재 등을 농촌에 보낼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인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 및 화물 자동차 등 최신 대형 기계 제품들을 대량으로 농촌에 보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농업 협동 조합들을 리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월하다는 시범적인 실례들을 가지고 있다.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 평안북도 룡천군 천진 농업 협동 조합,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 농업 협동 조합들은 이미 리 단위로 통합된 조합들로서 조합 경리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에서 현저한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조합들은 적은 관리 간부로써 발 관개를 비롯한 대규모의 생산 및 문화 건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산 작업을 기계화하고 선진 영농 방법들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각 작물들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며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조합 수입을 계속 증대시켜 조합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금번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 사업은 실로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시기적절한 현명한 조치인 것이다.

❊ ❊

통합 사업의 결과 평안남도에서는 2,011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645개로, 개성시에서는 128개의 조합이 39개로 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3,309개의 조합이 3,880개로 되였다.

통합전의 조합들이 평균 80호에 130정보를 가진 소규모의 것이였다면 통합이 완료된 오늘에 와서는 우리의 조합들이 평균 약 300호에 500정보의 경지 면적을 가진 대규모의 조합들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합들에는

상점과 신용 업무, 진료소와 가공 공업 등까지 농촌에서의 일체 경제, 문화 활동들이 포섭되게 되였다. 리내에는 오직 한 개의 사회주의적 경리가 있을 뿐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농촌 경리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 올것인바 그것은 실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업이 농업에 줄 수 있는 기계 및 설비들과 농업 생산이 도달해야 할 수준으로 보아 조합당 평균 500정보의 경지 면적은 조합내에서 토지, 생산 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다각 경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을 주며 로동력 원천의 확장과 아울러 그의 효과적인 리용도 가능하게 한다.

통합전의 조합들이 비교적 전문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경지 면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소규모의 생산 부문들을 잡다하게 운영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자체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합후의 조합들에서는 자연 경제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전 리적 규모에서 적지 적작 원칙을 보다 큰 범위로 적용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어느 한 조합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을 전부 공예 작물 재배 구역, 축산 작업반, 양잠 작업반, 과수 작업반 또는 알곡 작업반 구역 등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였으며 실지에 이러한 조합내 작물 배치의 재편성 과정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또한 종전의 조합이 단독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관개 하천 공사들이 통합 진행 과정에 벌써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적 및 문화적 건설들에서 막대한 예비가 조성되게 되였다.

또 종전에는 일부 여유 있는 조합들만이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앞으로 모든 조합들이 자체의 경제 토대가 확립됨에 따라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기타 현대적 대기계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충분한 작업량을 가지게 되였다. 실지에 농민들은 벌써 중 소 기계의 도입은 물론 현대적 최신 기술로써 경리를 장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로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분야에서도 통합된 조합들은 현저한 우월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작업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장비가 강화된 조건에서 로력이 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되는 한편 비생산 로력 및 관리 로력이 종전의 약 50% 정도로 축소되게 되였으며 부대 로력의 항시적인 새로운 용도들이 개척되고 있다.

이렇듯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 사업은 소규모 생산에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생산 및 문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키며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들은 생산 뿐만 아니라 판매, 구매, 신용 등을 직접 운영하게 되였는바, 이것은 통합으로써 개선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경제 활동 분야에 따라 조합과 조합 사이에 또 상업, 신용 등 경리 그루빠들이 기업체로서 호상 병존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유일적인 소유 관계하에 통합되여 경제 활동의 모든 부면이 계획적 운영에 복종하게 되였으며 조합이 하나의 대규모적인 기업체로 전변되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착취 현상 발현의 근원이 종국적으로 청산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리를 단위로 유일적으로 개편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리 내에서 종래에는 여러 조합들에 분산되여 있었던 조합 관리 간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군들이 선발되여 새 조합의 관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합 간부 진영이 현저히 강화되며 조합내 우리 당 조직의 핵심이 확대 강화될 것이다.

종래에는 한 개 리내에서도 조합과 조합과의 사이에는 자연 경제적 조건들로 말미암아 주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조건하에서 경제 발전에서의 일정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면, 통합된 후에는 생산이 높은 기술 수단들로써 장비되는 조건에서 자연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리용됨으로써 종래에 수입이 많던 조합 지역은 물론, 락후하다고 간주되던 조합 지역들도 수익성이 높은 지대로 전변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에 아무리 앞섰던 조합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통합하지 않고 협소한 규모로써 이미 달성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유지해 나간다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리득이란, 통합된 대규모 조합이 최신 기술로 장비된 기초 우에서 장차 거두게 될 리득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소규모 조합들의 농업 생산 발전 템포와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다. 례를 들어 종래에 비교적 앞섰던 조합이 자연 경제적 조건들의 덕택으로 알곡 정당 5톤 수준에서, 비교적 뒤떨어진 조합의 정당 2톤 수준을 3톤 앞섰다고 하자. 앞선 조합도 통합되지 않고 기계화되지 못한다면 정당 5톤, 6톤 수준을 좀처럼 넘어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뒤떨어진 조합도 통합되여 대규모화되고 기계화된다면 정당 10톤 수준은 문제도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전체 조합원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이 비교적 앞선 조합에게나 뒤떨어진 조합에게나 다 유리하다는 것을 능히 리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상 의식적으로 장성되여 있다. 때문에 금번 통합 사업이 단시일내에 아주 성과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번 통합은 당의 령도의 정확성과 현명성을 깊이 리해하는 우리 농민들의 정치 사상적 장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 당과 정부 주위에의 그들의 단결의 가일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렇듯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우리 농촌에서 우리 당의 정치적 진지를 가일층 공고히 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전체 부문들의 발전, 특히 공업 부문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거대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자체의 경제 활동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식량을, 경공업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론할 여지도 없거니와, 조합 자체가 일정한 정도로 경공업품 생산에 직접 종사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에 속하는 제품들(례하면 전재)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 산업들의 발전과 아울러 중공업에 대한 국가 투자 규모의 현저한 확대의 가능성을 주게 되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속도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협동 조합들은 종래에는 농기계 임경소를 통하여서만 현대적 대기계들의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 통합된 조합들이 직접 조합 자체의 부담으로 현대적 기계들을 대량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며 농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공업의 발전을 현저히 자극하게 될 것이다.

통합된 조합들은 관개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최신 기술 수단으로써 자체 장비 수준을 현저히 높이며 생산 및 문화 건설에 대한 거액의 자체 투자로써 공동 경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촌에서의 일체 문화 후생 및 교육 보건 시설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건하는 사업에서 일대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자체로 농촌 상업망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상품 공급 체계에도 획기적인 변동을 초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농촌 소비 협동 조합이 해체되고 매 군에 국영 도매 상점망이 신설되며 농산물 수매 체계에도 일정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이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력의 일부를 공업에 직접으로 방출시키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간접적으로 농촌에 봉사하던 일정한 국가 로력을 해방하여 준다. 리 행정에 종사하던 인원들과 상업 류통 부문에 종사하던 일'군들과 함께 일정한 수의 보건 부문 일'군들이 역시

국가 로력 정원으로부터 감소된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시기 농업 협동 조합들을 리 단위로 통합하며 그들로 하여금 상품 류통, 신용, 보건, 문화 사업을 직접 담당케 하는 대책은 농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경제를 포괄하여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생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초래하며 오늘 우리 혁명의 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 사업을 성과적으로 완료하였다. 그러나 통합만으로써 이 사업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 선출된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는 통합된 조합들의 공동 재산을 정확히 등록하며 이를 새로 창립된 조합에 이관하는 사업이 남아 있으며 금년도 결산 분배 사업을 옳게 결속 짓는 사업도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 위원회들 앞에는 조합의 관리 운영과 생산 조직을 새로 조성된 환경과 생산의 요구에 적응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어려운 과업이 서 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우리 혁명 발전이 요구하는 생산 발전과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 그리고 상품 류통 사업의 조직 운영이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느냐 못 되느냐는 새로 선출된 관리 위원회의 역할 여하에 적지 않게 달려 있다.

관리 위원회들은 현 시기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서 담당한 바 임무가 자못 크고 영예로운 것임을 옳게 인식하고 지방 당 단체와 정권 기관들의 옳은 지도 방조하에 그 첫 걸음부터 통합된 조합들이 가지는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당의 농업 정책을 당이 의도하는 바 대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김 관 식

오늘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기초 우에서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은 리 단위로 종전의 몇개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이와 같은 거대한 승리와 전망 속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은 지난 1년 간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생산물 및 화폐 수입을 분배 결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금년도 년말 결산 분배 사업은 개인 소비 폰드를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분배하여 주는 한편 농업 협동 조합 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 제기되는 공동 재산 이관, 채권 채무 정리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만큼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적용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생산, 분배 등 모든 경제 활동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바 그의 기초에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정당히 결부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며 공동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적 원칙이 놓여 있다.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은 호상 모순되며 따라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은 개인적 리익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적 리익에 배치된다.

그러나 생산 수단이 공동적,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서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은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의 제고는 그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공동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 공간으로 되고 있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자기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공동 경리의 발전은 촉진되며 그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수입은 더욱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투하한 로력에 기초하여 그들의 보수를 정확히 분배하는 것은 조합을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 조합을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합내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특히 결산 분배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동 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창조적 적극성이 비상히 앙양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 소비 폰드가 정확히 분배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고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제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생산과 분배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정확히 적용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의 공고 발전을 저애하였는바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방향에서 생산 및 로력 조직을 하지 못한 데로부터 적지 않은 조합원들을 부대 로력으로 돌리여 공동 로동에서 리탈케 한 데서 표현되였다.

1957년도 농업 협동 조합 년간 사업 총화 자료에 의하면 량강도내 일부 조합들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동 로동에서 리탈하여 개인 부업 경리에 종사하는 현상을 발로하였다. 이것은 이 농업 협동 조합들에 망라된 조합원들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 경리의 공고 발전에 일정한 저애를 주었다.

량강도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적지 않은 조합원들을 부대 로력으로 돌린 거기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 경리가 발전됨으로써만 조합원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수입 분배는 조합 자체가 생산한 생산물과 화폐 수입 중에서 지불하며 조합원들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협동 조합의 범위내에서 각자가 수득한 로력일에 따라 분배를 받는만큼 해당 조합들에서의 로력의 합리적 조직은 공동 경리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수입 분배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량강도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을 부대 로력으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공동 경리에 대한 그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지 못하였으며 공동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공동 경리 발전에 장애를 준 또 하나의 편향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정당히 결부시키지 못한 데로부터 일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들을 규정에 위반되게 더 많이 소유케 하여 그들을 공동 경리로부터 리탈시키며 나아가서는 개인 부업 경리에 종사케 한 데서 표현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생산은 조합원들의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를 전제로 하는만큼 생산 및 로력 조직 행정에서 이에 대한 응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생산과 분배를 유기적 통일 속에서 고려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들을 규정에 위반되게 더 많이 소유케 하였다.

1957년 말 현재 함남도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과거 부유한 중농의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과수목과 규정 이외의 토지를 개인 경작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함흥시내 23개 조합들에서도 44명의 부유한 중농의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585본의 과수목과 4,700평의 논, 13,100평의 밭을 개인 경작으로 허용하였었다.

그리고 량강도내 245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2,385호의 조합원 농가들이 3,664 반보(1호당 460평)의 개인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갑산군 창도리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1호당 평균 1,500평의 개인 터전을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과 분배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은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공동적, 협동적 생산 수단들을 개인 경리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 으로써 공동 경리의 경제적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조합원들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저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인바 그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중요 측면의 하나인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을 정당히 결부시키지 못한 결과에 발로된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적 리익은 조합의 공동적 리익에 복종되여야 하며 조합원들의 수입 증대는 공동 경리의 발전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공동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애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결산 분배에서의 평균주의이다.

조합들에서의 조합원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보수는 결산 분배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결산 분배 사업에서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적용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개인 소비 폰드를 분배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평균주의적 분배 방법을 취함으로써 공동 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성과 열성을 마비시키는 현상을 발로하고 있다.

례컨대 황해남도 청단군 작천리 동기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작년말 결산 분배에서 조합원들의 가족 수에 따라 배급식으로 알곡을 분배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1년 간에 의무 로력일도 취득하지 못한 조합원이 분배 받은 알곡량은 공동 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많은 로력일을 취득한 조합원이 분배 받은 알곡량 보다 5가마니나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발로되였다. 그리고 신원군 신상리내 5개의 협동 조합들에서는 조합원 가족 1인당 600그람의 비률로 배급식 방법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였으며, 옹진군 립성리내 6개 조합들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를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도 년말 결산 분배 사업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분배에서의 평균주의적 경향을 초래케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일부 조합원들의 공동 로동에 대한 무책임성과 기피 현상을 발로시켰으며 로력일을 많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적게 받은 일부 조합원들은 공동 로동에서 열성을 발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서 리탈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분배는 로력일에 의하여 실시되는만큼 조합원들은 필연적으로 로력일의 다과에 따라 분배 받을 것을 요구한다. 만일 로력일에 기초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로력일을 많이 수득한 조합원이나 그렇지 못한 조합원이거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면 공동 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책임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또 그에 대한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결산 분배 사업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의 저하 및 그들 중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 부업 경리에의 치중은 개별적 조합에서 나타났건 또는 일부 지방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나타났건간에 모두가 농업 협동 조합의 공고 발전을 저애하는 유해로운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는 비교적 많은 로력일을 수득한 조합원들의 불평을 야기시킴으로써 조합원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의 정신을 약화시키며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애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 협동 조합을 가일층 강화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농업 협동 조합의 생산 분배 등 모든 경제 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특히 개인 소비 폰드 분배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평균주의를 근절하고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의 자극은 개인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원칙에서 리탈할 경우에 그것은 개인 리기주의적 경향을 발생시킴으로써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애하는 작용을 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공동 경리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축적 폰드를 개인 소비에 충당시키며 그의 비률을 낮게 설정하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황해남도 신원군 신창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37만 6천 원에 해당하는 알곡을 공동 축적 폰드로 조성한 다음 이를 생산 수단의 구입과 기본 건설에 리용하지 않고 그의 80% 이상을 조합의 소비 폰드에 충당하였으며 도마 협동 조합에서도 이와 류사한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의 공동적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정당히 결부시키지 못한 결과에 초래된 것인바 그것은 조합의 생산적 건설과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애하였다.

또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공동 축적 폰드를 낮게 설정하고 개인 소비 폰드를 지나치게 설정하려는 경향을 발로하고 있는바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금후 2—3년 내에 70만 정보의 밭 관개 체계를 확립하며 논 관개 면적을 새로 30만 정보 이상 확장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생산적 건설을 비롯하여 농촌 문화 주택과 교육, 문화, 보건, 위생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당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혁명 과업을 최단 기간 내에 수행하기 위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위시한 대형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할 방침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협동 조합들은 점차 이러한 대형 농기계들로 생산과 건설을 위한 자체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는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이외에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자체 투자를 더 많이 증대시켜야 하는바 이로 말미암아 공동 축적 폰드를 종전보다 더 많이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과 조합원들은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장래의 리익과 공동 경리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목전의 리익에만 구애되여 공동 축적 폰드를 낮게 설정하려 하며 새 해의 영농에 필요한 종곡과 비료 교역곡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채무를 새 조합에 전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소비 폰드를 조성하려는 경향을 발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면서 공동 경리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장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당은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생산 수단 및 생산 시설, 공동 축적금과 채권을 포함한 일체 공동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통합되는 협동 조합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이며 채무는 금년 영농 자금으로 차입한 금액과 생산 수단 구입에 충당한 장기 채무중 금년에 상환할 금액은 해당 조합의 금년 수입에서 청산하고 그 나머지 채무는 통합된 조합에 인계할 것이며 영농용 종자, 비료 교역곡, 금년도 관개 사용료 및 임경료는 해당 조합의 금년 수입에서 공제할 것이며 공동 축적금과 사회 문화 폰드 및 사료는 통합된 조합의 결정으로 동일한 비률에 의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금년도 결산 분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농업 협동 조합 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조합 성원들에게 소비 폰드를 정확히 분배하며 조합의 장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에는 축적 폰드를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조합의 경제적 토대가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비 폰드를 적절히 설정하면서도 공동 축적 폰드를 더 많이 조성하는 것은 협동 경리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개인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면서 조합 전체의 리익을 홀시하며 목전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장래의 리익을 생각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의 그릇된 편향은 개인 리기주의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적용은 집단주의 사상 교양과 더불어 이와 같은 개인 리기주의적 편향을 근절하기 위한 실제적 방도로도 된다.

* *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로력일을 정확히 계산 정리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로력일은 조합원들이 투하한 로동의 다과와 함께 그의 고저도 표시한다. 따라서 정확한 등급별 작업 정량에 기초한 로력일은 조합에서 진행되는 다종다양한 로동을 측정케 하며 조합원들 간에 소비 폰드를 정확히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은 로력일에 대한 계산 정리 사업을 제때에 진행하지 않으며 작업반 호상간의 로력일을 대조 검토하지 않는 등 그에 대한 통제 사업을 등한히 함으로써 작업반 호상간의 로력일 수득에서 심한 불균형을 조성케 하고 있다.

김책군 석호 농업 협동 조합과 제 1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지난 해 결산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조합원들이 수득한 로력일을 계산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도소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각이한 정량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동일한 조합원 수로 구성되여 있는 제 4 작업반에 비하여 제 1 작업반은 아무런 근거 없이 340 로력일을 더 수득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작업반들에 부과한 년초의 생산 계획 및 로력일 투하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실적이 규정된 로력 계획보다 정당한 리유 없이 초과한 작업반들의 로력일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업반 성원들이 계획에 예견되지 않은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 농경지의 확장, 밭 관개의 실시 등으로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로력일을 초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로력일을 평가 가산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수립된 계획보다 로력일이 초과 지출되였다 하여 기계적으로 삭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마비시키며 조합 생산 발전에 저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반별 년간 로력일 투하 계획과 실적의 대비 검토는 반드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 조건에 의한 추가 로력, 생산 발전을 위한 신규 작업, 집단적 혁신 운동의 전개 등에 의하여 더 많은 로력일을 수득한 작업반에 한하여서는 해당한 로력일을 더 지출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로력일을 계산 정리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조합 생산과 관련없는 비생산 부문의 로력일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다.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거듭되는 당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비생산 로력일을 지출하고 있다.

온성군 공건 협동 조합에서는 금년도 7—8월에 378 로력일, 김책 림명리 봉동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5—6월에 130 여 로력일을 써클 련습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각각 지불하였다,

그리고 함북도 연사군 노평리 인민 위원회 일'군들은 신용 협동 조합 부기원의 생활 대책을 강구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리내 3개 조합에서 210 로력일을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회령군내 리급 지도 일'군들은 리 민주 선전실장에게 리내 한 조합에서 50 로력일씩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적용을 방해하는 그릇된 현상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관리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의 로력일을 계산 정리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는 관리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이 자체로 수득하여야 할 의무 로력일 수가 지난 해보다 현저히 증가되였는바 그것은 조합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이 생산에서 리탈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들이 조합 생산 실정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려는 우리 당의 요구

를 반영한 것이다.

매개 조합들에서는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이 공동 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자극하는 방향에서 그들이 수득한 로력일을 해당 작업반 또는 분조 성원들 앞에서 정확히 계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이 공동 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무원칙하게 융화하여 로력일을 계산하려는 그릇된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조합의 생산물 총량과 화폐 수입을 옳게 확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협동 조합들에서 물질적 우대제와 보상제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조합의 공동 재산과 생산물 및 화폐 수입에 대한 일부 불순 분자들의 략취, 탐오, 랑비 현상을 방지하며 또한 그를 제때에 적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지난 해에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작업반 별로 생산물 총량과 화폐 수입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우대제와 보상제를 정확히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매개 협동 조합들에서는 작업반별로 탈곡 사업을 진행하여 수확물을 정확히 실사 확인한 기초 우에서 우대 비률을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 계획이 작업반별로 정확히 부과되였는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만일 예비를 옳게 타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응당 더 많은 계획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계획을 부과 받은 작업반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그에 대한 우대 비률을 낮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풍작을 이루고 있는 금년도의 결산 분배에서는 우대 비률을 자기 조합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 우대제 규정에 의하면 국가 과제를 초과한 량에 대하여서는 그의 60%까지를 해당 작업반 성원들에게(의무 로력일을 수득한 조합원에 한함) 우대 지출하게 되여 있다. 만일 새로운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우대 비률을 이 최고 기준에 두고 설정한다면 로력이 많은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현물 우대량이 차례지는 반면에 로력이 부족한 애국 렬사 유가족들과 후방 가족, 특수한 사정으로 의무 로력일을 수득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극히 적은 우대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 분배에서 심한 불균형을 가져 오게 될 것은 명백하다. 농촌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군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대 비률을 해당 조합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설정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방조 대상으로 되는 애국 렬사 유가족들과 후방 가족들의 생활 수준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농가들의 평균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도 결산 분배 사업에서는 호상 원조와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방조 폰드를 더 많이 조성함으로써 방조 대상자들의 생활을 원조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활 수준을 짧은 기간내에 모두 다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까지 도달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애국 렬사 유가족들과 후방 가족들에 대한 방조——이것은 농민들 속에서 호상 원조와 협조의 정신과 상호 부조의 미풍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 바쳐 싸운 혁명 투사들의 가족을 원호하는 성스러운 의무이다.

결산 분배 사업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다른 문제의 하나는 조합에서 탐오, 랑비 현상을 적발 시정하는 그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조합 검사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며 당원 및 조합원 핵심들을 중심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 재산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의 결산 분배 사업은 이상의 실무적 문제들과 함께 농업 협동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바 종전의 조합 관리 위원회들은 통합된 조합 관리 위원회의 지도와 협조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적용되도록 하며 조합원들 속에 협동 조합 통합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금년도 결산 분배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과 로력 문제

김 원 석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인 전진은 로력 문제를 당면 해결하여야 할 긴절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매 시기에 있어 그의 장성 규모와 속도에 상응하게 로력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것은 결국 로력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와 로력 보충 원천간의 문제이다.

로력 문제는 인민 경제의 방대한 규모와 장성 속도를 계속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전후 시기에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관련하여 로력에 대한 수요는 그 장성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아주 방대하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시기에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공장을 복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본 건설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복구 건설을 위한 로력과 조업 개시를 위한 로력 수요가 동시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로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장성되는 반면에 로력 원천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전후 시기에도 농촌은 자체내에서의 방대한 로력 수요, 축력의 감소, 농촌 로력 구성의 변동, 전야 작업의 기계화 수준의 저위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로력 보충 원천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여의 전쟁이 로력 자원에 미친 일정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후에 우리 나라에서 로력 문제는 전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섰다.

그러나 우리 당과 정부는 전후 시기에 로력 문제를 옳게 해결하면서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들어 섰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공업 생산액을 2.6배로, 국민 소득을 2.2배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였는바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제고를 고려하여도 30만 명의 로력 증가가 요구된다. 이 외에 이 기간에 사회적 또는 생리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로동 대렬로부터 리탈하게 되는 로력의 보충까지 고려한다면 로력에 대한 수요 규모는 실로 방대한 것이다.

이렇듯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과 건설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로력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였다.

그런데 최근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근로자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5개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다는 것은 예견하였던 로력 투하를 그만큼 앞당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로력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개년 계획의 기한 단축과 관련하여 로력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의 년 평균 장성 규모는 급속히 증대하게 되였는바 명년에 예견하였던 것보다 2—3배나 더 빠른 속도와 규모로 로력 투하를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로력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의 급속한 장성과 로력 보충 원천간에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사정이 조성되게 되였으며 로력 문제는 보다 긴절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러면 오늘 로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로력 보충 원천의 형편은 어떠한가?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이미 완성되였으나 지난 날과는 달리 그는 공업을 위한 로력 보충 원천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농촌 로력 자체도 전야 작업의 기계화 수준이 아직 미약하며 100만 정보의 발과 논 관개 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과 문화 농촌 건설의 진행과 관련하여 긴장되고 있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과는 달리 지난 해까지도 개인 상공업자와 수공업자들은 로력 보충 원천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놀아 왔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가 확립된 조건하에서 지난 날 일부 있을 수 있었던 로동력의 자연 발생적 류입은 전연 기대할 수 없게 되였다.

자연 인구의 증가, 로동 능력 있는 인구 증가는 중요한 로력 보충 원천의 하나인바 이것은 현 시기 로력에 대한 수요의 장성에 비할 수 없는 정도로 느리게 장성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의 로력 문제는 비단 이상과 같이 로력 보충 원천이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만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행 로력 기준량이 공업의 기술적 장비도와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에 적응하지 못하다는 거기에도 있다.

전후 시기에 공업은 계속 최신식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였으나 그러나 로력 기준량은 그러한 속도로 장성되지 못하고 그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낡은 로력 기준량에 근거하여 로력 수급 사업을 계획하고 그를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력 문제가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긴절하게 나서고 있는 로력 문제——이것은 과거와 같은 낡은 방법으로써 더는 해결할 수 없게 되였다. 생산 계획이 장성되면 의례히 그에 따라서 로력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장성된 계획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따위의 낡은 사업 방식으로써는 앞으로 빨리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가 확립되였고 근로자들의 혁명 정열이 전례없이 고조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로력 문제 해결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전면적으로 기술 개건이 수행되고 있으며 날마다 기술적 혁신과 새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는바 이것들이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 제고의 현실적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이 현실적 조건들을 옳게 동원하여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여기에 로력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경제 발전의 새 요구에 적응하게 로력 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절 재배치하는 데서도 로력 문제 해결의 예비를 찾아야 한다.

＊ ＊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이것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한 후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새 사회 제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담보로 된다.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생산과 건설의 급속한 장성과 로력 자원간에 조성된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도 된다.

그것은 전후 시기에 우리의 공업이 최신식 기술로 장비되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예비를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로력의 절대적 증가 없이 그리고 로동력을 절약하면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긴절하게 나선 로

력 문제의 해결 여부는 매개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 제고의 예비와 가능성들을 얼마나 많이 탐구해 내느냐 못 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개건기에 들어 선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 제고의 가장 중요한 예비는 기술적 진보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 진보의 기본은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이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생산 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되여 로동의 기술적 장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위 제품당 로동의 지출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로동은 더욱 능률적이면서도 헐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화, 자동화는 로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생산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거대한 규모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로력 문제의 해결에서 이 중심 고리를 틀어 쥐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계화, 자동화를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되여 있는가?

해방후 13년 간 특히 전후 시기에 당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다.

전후 기간에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중공업 기지를 개건 확장하고 연료—동력 기지를 강화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창설하였다.

특히 기술적 진보의 기초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오늘에 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기계와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결정적으로 퇴치하면서 인민 경제의 본격적인 기술적 개건기에 들어 섰다.

지난 기간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는바 해방후 7만 7천 여 명의 새로운 전문가와 기술일'군들이 양성되였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시기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기계화와 자동화를 광범히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문제는 도처에서 온갖 가능성들을 옳게 리용하여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기계화, 자동화를 생산에 도입하는 데 있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이다. 생산에서 적용되는 기술이 복잡하고 그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의 보다 높은 기술 수준과 숙련도를 요구하게 되는바 기술적 장비에 상응한 기능이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장, 기업소들의 새로운 기술적 장비 수준에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따라 세워야 한다.

매개 생산 직장들에서는 일상적인 생산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야간 기술 학교, 기술 전습회, 각종 교양망 등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데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기계화, 자동화 수준의 제고에 적응하게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대책들이 없이는 모든 생산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없으며 로력을 절약하며 그의 랑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당 중앙 위원회 편지 토의 행정은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가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 제고의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되는 동시에 로력 문제 해결의 고리로 된다는 것을 잘 확증하여 주고 있다.

황해 제철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 편지 토의 행정에서 많은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일부 설비를 개조하고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올해 실적보다 216%

이상으로 높일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철소가 받게 되여 있던 4,000명의 추가 로력과 20만 공수의 사회적 로력 협조를 받지 않고 현 로력으로 금년 계획보다 선철은 3.9배, 강철은 2배, 선재는 4.5배, 콕스는 3.3배 이상을 비롯한 기타 각종 제품의 생산과 기본 건설을 보장하게 된다.

승호리 쎄멘트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현재보다 0.5—1급 이상씩 더 높이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2배로 높임으로써 명년에 금년의 2배가 넘는 50만 톤의 쎄멘트 생산을 결의한 것을 비롯하여 수다한 공장들이 같은 방법으로 로동 생산 능률과 로력 기준량을 2—3배로 높일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손 로동에 의한 락후한 작업 방법을 유지하면서 작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무관심하며 자동화와 기계화의 사소한 가능성까지도 모두다 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낡은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기계화, 자동화의 모든 예비들을 탐구하여 내며 그를 지체 없이 실현시키는 데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현 시기 로력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다른 방도는 첫째로 나라의 로력 자원을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며, 둘째로 이러저러한 리유로 아직 생산에 인입되지 못한 로동 능력 있는 주민층의 생산에로의 인입이다.

우선 이미 취업하고 있는 로력 자원을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간, 생산 부문 자체 내부에서의 부문간 또는 직종간에 옳게 조절 재배치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케 한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발전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투쟁을 시종일관하게 전개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물질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은 부단히 증가되여 왔다. 지난 1957년도의 국영 부문의 평균 재적 종업원 수는 전년에 비하여 3만 6천 명이 더 증가되였는데 그중 66.5% 이상이 물질 생산 부문에 배치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생산의 비약적인 발전과 로력 문제간의 심각한 사정은 로력 자원을 새 정세에 알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로력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생산 부문의 로력을 축소하여 생산 부문에 돌리는 것인바 여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 관리 기관 및 경제 관리 기관들의 기구를 대담히 축소하며 사무를 적극 간소화하는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 고무되여 궐기한 근로자들의 창발적인 제기들은 여기에 적지 않은 예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로동 부문과 경로동 부문간에 로력을 재배치하는 것인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특히 중공업 부문과 건설에서 많은 로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 로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우리 당은 이미 녀성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부문의 작업에 남성 로력을 채용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그러한 작업에 남성 로력을 배치하는 현상이 퇴치되지 못하고 있다.

례하면 1957년 말 현재 종업원 총수 중 녀성 로력의 비중이 예산 부문에서는 24.4%, 상업 부문에서는 20.3%에 불과하며 특히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녀성 로력으로 능히 대신할 수 있는 작업을 남성 로력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경향들은 결정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로력 특히는 남성 로력

재배치의 필요성과 로력의 남녀별 구성을 해당 부문의 특성과 결부시켜 재검토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로동 부문과 경로동 부문간의 로력의 합리적 조절은 우리 나라의 로력 원천에 비추어 보아 아직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녀성 로력의 새로운 인입과 옳게 배합됨으로써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현 시기 이미 취업하고 있는 로력 자원의 재배치와 녀성 로력의 새로운 인입은 로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상 유기적인 련관을 가지고 있다.

녀성 로력의 광범한 인입은 지금 로력 문제 해결의 필수적 요구로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녀성 로력의 광범한 인입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 사회적 활동과 함께 점차 경제 활동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당면하여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특성을 갖는 녀성 로력을 광범히 인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여 있으며 계속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광범한 부녀 대중을 번잡한 가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치원, 탁아소, 사회 급양망 및 사회 봉사 기관망이 조직되였으며 계속 조직되고 있는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녀성 로력을 광범히 인입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구비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 보다 광범히 녀성 로력을 인입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직장들에서 필요한 설비들을 계속 갖추어야 한다.

❉ ❉

우리에게는 당면한 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들이 있는바 이는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제고는 우리 나라 제도하에서 합법칙적이며 로력 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는 사회주의에 고유한 원칙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을 옳게 리용하여 로력 문제 해결의 예비를 꾸준히 찾아 내여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예비의 탐구 리용을 저애하는 것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이다.

아직 일부 일'군들은 현 시기 로력 문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로력 수급 사업에서 낡은 로력 기준들을 고집하면서 생산 과제를 로력의 절대적 증가로써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로력 재배치 사업을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조절할 대신에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 부문별 리해 견지에서 진행함으로써 로력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지장을 주고 있다.

보수주의와 소극성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그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흔히 발로되고 있다.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같이 로력 문제의 해결에서도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로력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오늘 누구든지 로력을 잘 조직하고 이를 절약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될 것이다》 (김 일성).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고리

박 태 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기술 혁명의 본격적인 수행은 나라의 전기화의 촉진을 요구하며 전력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은 강력한 전력 공업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바 전기는 현대적 대생산의 기술적 기초이다.

강력한 전력 공업이 없이는 기술적 진보의 기본으로 되는 생산과 건설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는 모든 사업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며 심장이다. 사람의 심장이 뛰다가 멎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발전기가 돌다가 멎으면 모든 사업은 다 쉬게 된다》.

이와 같이 전력은 인민 경제의 기본 동력이니만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언제나 선행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의 속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게 전력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전력 공업을 타 부문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가는 전후 기간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분배액의 증가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만 하여도 총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인민 경제 총 투자액의 7.5%에 해당된다.

공업 제 부문간의 투자 구성에서 전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다:

	1954—1956년(실적)
전력	14.4%
금속	7.0%
화학	7.6%

전력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전후에 전력 공업은 급속히 복구 발전되였다. 전력 생산은 1957년에는 1949년 수준을 116%로 릉가하게 되였고 1958년 1—9월에는 1957년의 동 기 실적을 112%로 릉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후에 전력 공업은 급속히 복구 발전되여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이와 같이 전력 공업은 급속한 속도로 장성되여 왔으나 오늘 그의 장성 속도는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장성 속도에 앞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인 대앙양기에 들어 서면서 더욱 현저하게 조성되게 되였으며 따라서 전력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기 제철, 전기 제강을 더 새로 도입하게 되며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화학 비료, 카바이트, 쎄멘트, 인조 섬유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 공정

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일과 같이 대규모 공장들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천 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일떠 섰으며 생산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100만 정보의 밭과 논 관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거대한 자연 개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선 긴급한 철도선을 전기화하고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해야 한다.

이 모든 사업들은 막대한 전력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으며 방대한 량의 전동기, 변압기 전선 등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더우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는바 이것은 금년도에 비하여 실로 2—3배에 달하는 전례 없는 급속한 장성 속도를 예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명년에는 올해에 비하여 절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3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로 방대한 수'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전력 생산은 례년에 드문 심한 갈수로 일정한 지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기한 단축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력 문제는 일정한 긴장성을 띠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관련하여 긴장된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욱 빨리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되였다.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시키며 급속히 증대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앙양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며 전력 공업 부문 앞에 나선 력사적 과업이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전기가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력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가?

우리 나라에는 전력 자원 특히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지세가 수력 발전에 유리하게 형성되여 있다. 지세를 리용하여 동해안에서는 고락차 발전 방법으로, 서해안에서는 저락차 발전 방법으로 도처에 발전 지'점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조수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화력 자원도 풍부한바 무연탄을 비롯하여 니탄, 옥수수 속, 톱밥 등이 가는 곳마다에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비인 타빈,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을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적 설비로 장비된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 많은 전기 기술자와 숙련 로동자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오직 이 유리한 조건들을 옳게 동원하여 온갖 방법으로 전력 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 전개하는가에 달려 있다.

현 시기 전력 생산을 더욱 빨리 증대시킴에 있어서 당면 중요한 과업은 당이 재삼 강조한 바와 같이 현존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등 증산 예비를 철저히 탐구하는 것이다.

지난 날 전기 부문내 일부 일'군들은 전력 증산 예비가 더는 없는 듯이 주장하면서 새로운 시설의 건설만으로써 전력 증산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부 생산 예비를 탐구하며 현존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불충분하게 강구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기 부문에는 증산 예비들이 더 많이 내재하고 있는바 현실은 그것을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현존 수력 발전소들의 도중 취수 설비만 완비하여도 8,400만 키로와트시, 수차 효률을 보장 효률대로만 높이면 약 4—5억 키로와트시를 각각 더 생산할 수 있는 예비가 있으며 그리고 수풍 발전부의 방수로 수위를 1.5메터 더 낮추고 언제의 높이를 0.8메터만 높인다면 년간 1억 키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속, 화학 및 경공업 부문의 생산 기업소들에 있는 기존 화력 발전 설비들과 전기성 산하에 있는 중 소 용량의 발전기들이 다 리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도 전력 증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당면하여 이러한 예비들을 남김 없이 동원한다면 새로운 건설에 비할 수 없이 적은 로력과 자재로 그리고 보다 짧은 시일내에 아주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당이 전력 부문에서 현존 설비의 리용률 제고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 하여 새로운 발전소들의 대대적인 건설에 적은 력량을 기울여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력 생산을 급격히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예비 탐구와 함께 현대적 대규모 발전소인 독로강, 강계 청년 발전소 및 운봉 발전소 건설과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의 화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병행하여 농업 협동 조합을 위시한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수력, 화력, 풍력, 조수력 등 온갖 조건들과 자체의 가능성들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여 중 소 규모의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중 소 규모 발전소의 건설은 대규모 건설에 비하여 자금이 적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짧은 시일내에 발전할 수 있으므로 그 건설 원가가 아주 낮으며 송배전 설비들이 많이 절약된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자체의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발전 예비들을 모두다 탐구 리용하여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나무 수차도 놓고 물레방아도 걸고 발전기를 놓자. 발전기를 우에도 걸고 아래에도 걸고 그 아래에다 또 걸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자…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있는 조건, 있는 자원들을 다 리용하여 소형 발전소들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들은 전력 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그를 신비화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부문에서 신비주의는 전기 기술자와 발전 설비들을 생산하는 기술자들 속에서 적지 않게 발로되였는데 그들은 전기 자체를 신비화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전기 설비는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발전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퇴치하고 기계 공업 부문 기업소를 비롯한 공무 직장을 가진 모든 공장들은 발전 설비들을 대담하게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군들을 전부 동원하여 근로자들을 적극 방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 소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조직 전개함으로써만이 우리들은 늦어도 1960년 8.15까지 농촌 전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기적으로 락후하던 농촌을 문화적인 농촌으로 전변시키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산간 벽지에서까지도 전기로 기계를 돌리며 가는 곳마다 전등'불이 휘황하게 비치게 하자》는 당의 호소가 실현될 것이며 기경으로부터 추수 탈곡에 이르기까지의 영농 작업과 부업 생산이 기계화, 자동화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여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대 중 소 규모의 발전소들이 도처에 건설되게 된다면 강령적 과업에서 제시된 20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생산은 6—7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완수하게 될 것이다.

결과에 우리 나라는 조밀한 발전소망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전국의 전기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에 들어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생산 공정이 종합적으로 기계화, 자동화됨과 함께 전기가 로동 행정에서 사람의 육체적 로동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로동은 더욱 헐하고 보다 홍겨운 일로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전기화된 도시와 농촌은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될 것이며 도시(공업)와 농촌(농업)간의 본질적 차이를 점차 페절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 정권 플라스 전국의 전기화이다》라는 레닌의 예언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 현실 속에서도 구현되게 될 것이다.

오늘 증대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전력 생산과 함께 그의 절약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력 절약의 예비는 생산 부문이건 비생산 부문이건 그 어디를 막론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전력 절약 예비의 탐구에 무관심하며 지어는 필요 이상의 전력을 사용 랑비하는 경향을 발로시키고 있다.

일부 직장들에서는 《전력을 쓰는 것이 생산 제품의 원가가 눅다》, 《우리 나라에는 전력이 많다》는 등 과거의 낡은 관점을 버리지 못한데로부터 능히 다른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전열 장치를 계속 사용하거나 전기 장식과 필요 이상의 외등 설치 및 고촉광 전구의 사용 등으로 전력을 랑비하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기 제강, 카바이트 및 쎄멘트 생산 등 일부 제품의 전력 소비 기준은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20—40%나 더 높은 형편에 처하여 있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현상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전력 절약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력 절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 제품의 단위당 전력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생산 설비의 능력을 제고하며 기술 공정을 개선하고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일련의 제품들에 대한 전력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비생산적 전력 소비를 철저히 근절하고 가능한 모든 부문들에서 전력 이외의 다른 연료로 전환할 데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전력 절약 투쟁은 모든 인민 경제 부문들과 함께 전체 인민들이 일상적인 관심하에 광범한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바 평양 시민들이 동화용 전등을 매일 1시간씩만 절약한다면 9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 전력을 로력과 자금의 추가 없이 얻어낼 수 있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은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이 요구하는 긴박한 과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튼튼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는 애국적인 투쟁이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계급 투쟁에서의 긴절한 문제

오 윤 수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천리마의 기세로 앙양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반혁명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형태에서의 계급 투쟁의 계속이다. 력사상 어떠한 착취 계급도 자기의 지배적 지위를 저항 없이 남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전복된 다음에도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항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전복된 착취 계급들도 바로 그러하다. 더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반혁명의 원흉 미제와 리 승만 괴뢰도당이 남반부에 머물어 있는 조건하에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이 종식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관련하여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은 더 한층 발악적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이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 상공업과 수공업, 농업이 다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으니 오늘 북반부에는 지주, 자본가, 개인 상인, 개인 농민은 없어졌다. 로동 계급의 대렬은 현저히 확대 강화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로농 동맹은 완전히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 서게 됨으로써 더욱 공고화되였다.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주위에 더 한층 굳게 결속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우에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세하에서 멸망하여 가는 계급적 원쑤들은 결코 반항을 그만두지 않는다. 아직도 북반부에 숨어 있는 반혁명적 요소들과 남반부에 머물어 있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오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급격히 장성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 방해하며 북반부에 자기들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더욱 악랄한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며 반혁명 분자들이 더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 원쑤들의 행동은 더욱 악랄하고 발광적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현 순간 원쑤들의 반항이 아주 첨예한 성질을 띠며 이를 반대하는 우리의 계급 투쟁의 가일층 강화가 요구되는 거기에는 일정한 필연적인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 개인 상공업과 소상품 경리가 남아 있을 때까지는 극소수 반혁명 분자들, 불건전한 분자들이 그 틈에 끼여서 자체를 음폐할 수 있었고 혹은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 상공업도 소상품 경리도 없어진 오늘에 와서는 그들이 자체를 음폐하기 곤난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였다. 사회주의에 적의를 품은 건달'군들은 오늘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착실하게 로동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건달을 부리자니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였다. 또 도시 농촌의 많은 주민들이 협동화를 통하여 조직화되고 직장에서나 가두에서나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금까지 숨어 오던 자들이 더는 숨어 있기 어렵게 되였다. 숨어 있던 모든 적대 분자들이 이제는 앉아서 죽느냐 발악적으로 반항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게 되였다.

다음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이 급격하게 앙양하게 되니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히 공고히 되기 전에 자기들이 책동할 발판을 확보해 두며 사회주의의 락원이 건설되기 전에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 방해하며 지연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제 더욱 맹렬하게 책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 복구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에 대하여 발광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허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제 1차 5개년 계획이 1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되고 700만 톤의 알곡, 5억 메터의 직물, 350만 톤의 강철 등 경이적인 목표가 6—7년 또는 4—5년 내에 달성된다면 북반부는 벌써 인구 1인당 알곡 700키로그람, 직물 50메터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것이 남반부에서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동 통치를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 때에 그들은 과연 무슨 수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막아낼 것인가?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북반부에 인민 생활의 락원이 건설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히 공고히 된다면 원쑤들은 북반부에서 다시는 발붙일 곳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원쑤들은 바로 이 순간에 보다 결정적으로 행동하며 간첩들을 박자고 한다.

오늘 북반부에 남아 있는 적대 분자들과 직접으로 남에서 파견된 간첩들은 우선 우리 당 정책의 관철을 파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 악질적이며 로골적인 행동에로 나오고 있다. 례하면 건설 부문 직장들에 잠입했던 원쑤들은 설계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사업에서 무질서를 조성하고 로력과 자재를 랑비케 하여 건설 속도를 지연시켜 국가에 손실을 주려고 시도한다. 농업 협동 조합에 잠입한 불순 분자들은 탱상모 문짝에 불을 노아 알곡 증산을 방해하려 하며 국가 농목장들에 잠입한 자들은 가축들을 폐사시키며 뽕나무를 말라 죽게 하며 약독이 오른 뽕잎으로 누에까지 죽게 하려고 한다.

적들은 또한 우리 군대의 배치 정형, 무장 상태, 전략 전술, 군수품 생산, 군사 시설, 비행장, 군대의 사상 동태, 공장, 기업소들의 배치와 생산 능력 등 군사 기밀과 국가 기밀을 면밀하게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은 날로 공고화되여 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며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허물어 버리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과 우리 인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적대 분자들은 군중들 속에서 구두 혹은 삐라로써 사회주의 제도와 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방 중상하려고 한다. 적들은 특히 청소년들 속에 부르죠아 사상, 숭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퇴패적인 부르죠아 문학 작품들을 비롯한 반동 출판물들을 류포시키려고 애쓴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건설을 파괴하며 북반부에서 자기들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전복된 착취자들의 잔재와 적들에게 복무하는 반동적 요소들을 비롯하여 지어는 불평 분자, 탐오 분자, 사생활에 약점 있는 자들, 악질 종교인 등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불건전한 자들을 다 리용하려 한다. 오늘 일부 종교인들은 반동적인 숭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만큼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책동에서 이러한 종교인들을 극력 리

용하려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앞둔 우리 인민에게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북반부에 숨어 있는 적대 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북반부를 사회주의 일색으로 전변시켜야 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적대 분자들은 철저히 소탕하여야 한다. 동요하던 분자들은 만약 그들이 결국 적의 편에 선다면 적으로서 처리하여야 하며 인민의 편으로 들어 올 것을 원한다면 철저히 교양줌으로써 적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추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의 통일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혁명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진압적 징벌적 기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쑤에 대한 진압과 징벌은 전체 인민을 이에 인입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판가리의 결사적 투쟁이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반항하는 적——적대 계급들을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 적대 계급에 대한 독재란 폭력적 진압과 징벌을 전제로 한다. 교양의 방법이나 관대 정책은 요컨대 적을 소멸케 하는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적의 편에 끌려 갔거나 전에는 적의 편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철저히 개준하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 오려는 자, 오직 이러한 자들만을 관대히 취급하여 교양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적대 사상을 뽑고 인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동시에 적의 대렬을 와해시키고 적을 소멸케 하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 우경 투항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외곡하면서 적대 분자들에게도 관대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적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의 내무, 검찰, 사법 기관 일'군들은 법의 계급적 기초를 떠나서 무원칙하게 《관대한》 태도로써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징벌적 기능을 제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인민 주권의 적에 대한 진압과 징벌의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은 전체 인민 대중을 이에 참가시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인민적, 일상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전체 인민의 사업이며 인민 주권 기관들은 그들 자신의 기관이다. 인민 주권 기관들의 사업에 인민 대중이 직접으로 참가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특징적인 사실이다.

지난 기간 적에 대한 진압과 징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무 기관내 일부 일'군들은 이 사업의 《특수성》에 빙자하면서 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줄 몰랐다. 결과 응당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적대 분자들은 소수의 내무, 검찰 기관 일'군들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있으나 인민의 눈과 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특히 해방후 10 여 년에 걸친 혁명 투쟁 행정에서 집단 생활에로 조직화되였으며 정치적으로 단련되였다.

그들의 혁명적 경각성은 아주 높아졌다. 원쑤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증오와 각성은 더욱 크다. 적대 분자들을 적발하는 데 있어서 직장과 가두를 막론하고 군중에게 의거하는 방법은 이미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도시 농촌의 직장과 가두들에서 전체 인민이 일상적으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동원되는 경우에라야만 원쑤들을 능히 소멸할 수 있으며 다시는 원쑤들에게 발붙일 곳이 없게 할 수 있다.

반혁명을 반대하는 투쟁에 전체 인민이 동원되게 하며 원쑤들에게 발붙일 곳을 영원히 주지 말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원쑤들과의 성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우선 적아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적을 증오하고 그와 투쟁할 줄 알아야 하는바 이것은 높은 계급 의식을 전제로 한다.

우리 인민의 계급 의식은 지난 시기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현저히 제고되였으나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농민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오늘도 어떤 지방 일부 농민들은 과거에 자기들을 억압 착취하였고 지금도 당과 정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하여 은근히 적의를 품고 있는 전 지주를 증오할 줄 모르며 경계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비계급적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농민들 속에서 계급 의식, 사회주의 의식을 결정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의 쓰라린 경험에서 중대한 교훈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토지와 공장을 빼앗긴 지주, 자본가들은 미제 침략 군대가 북반부를 강점하자 그들과 더불어 우리 당원들과 로동자, 농민들을 천인공노할 야만적 방법으로 대량 학살하였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과 착취자 계급들의 비인간적 야수성을 말해 주는 동시에 계급 투쟁이란 무자비한 것이며 계급적 원쑤들과는 철저히 싸워서 이를 진압하던가 무자비하게 소멸시켜야 하는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쑤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에서 수공업자들과 개인 기업가들, 소상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받들어 협동화됨으로써 자신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기초에서 착취 관계가 소멸되고 착취의 근원이 소멸되였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상과 습성이 일조일석에 사회주의적으로 전변될 수는 없다. 특히 어제까지도 남의 로력의 착취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것으로써 잘 살려고 애쓰던 부농들과 개인 상공업자들의 의식과 습성이 협동 조합에 가입한 이튿날부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낡은 의식의 잔재는 오래 동안 사상 생활과 정치적 동향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착취자적 사상 의식은 오직 장기간의 로동 행정과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근로자들 속에 낡은 의식의 잔재가 남아 있는한, 이것은 계급적 원쑤들에게 이러저러하게 리용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토대가 사회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된 조건하에서 적들은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의 낡은 의식의 잔재를 리용할 틈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있다. 그러니만큼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더 한층 제고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통일 전선내에서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지 않는 사상 경향은 허용될 수 없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바 그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지지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상으로써 통일되여야 한다.

다음 반혁명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공장, 기업소, 국가 기관, 기타 직장들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며 각급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 기업소들에서 간부 선발 배치를 엄격히 하며 배치된 일'군들에 대한 체계적 검열과 교양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대렬내에 한 놈의 적대 분자도 기여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다.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다.

임진 조국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발휘한 애국주의

김 석 형

1598년 12월 16일(음력 11월 19일)은 리 순신 장군이 인솔한 우리 함대가 명나라 함대와의 협동 작전으로써 패퇴하는 흉악한 원쑤 일본 무력 침략자들을 남해 바다에 쳐 넣은 빛나는 승리의 날로서 임진 조국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한 전승 기념일로 된다.

1592년(임진년) 초에서 1598년 말에 걸친 임진 조국 전쟁은 당시 조성되였던 국내외의 정세로 보아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힘에 겨운 시련이였다. 조선 인민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자기의 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였으며, 이로써 빛나는 애국적 전통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중국 인민과의 협조와 친선의 전통이 또한 이룩되였다.

임진 조국 전쟁은 그 규모로 보거나 침략자의 악랄성, 집요성으로 보아 과거 봉건 시기 동방 아세아에 있어서는 그 류례가 드문 전쟁이였다.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 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16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봉건적 중앙 집권은 약화되고 국력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량반—지주 계급의 토지 겸병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약화시키였고 국역(國役)의 부담자인 《공민》(량인 신분의 농민 즉 국가적 예속 농민)이 국가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사적(私的) 지주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국가와 량반—지주들의 착취는 일반적으로 강화되여 농민들을 령락시키였다. 봉건 국가와 지주—량반 계급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점차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토지 소유의 발달은 지배 계급 내부의 모순도 격화시켰다.

이 시기 통치 계급들은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호상간의 투쟁—《당쟁》에 몰두하였다. 《당쟁》은 중앙 집권적 제도의 파괴와 정치적 부패를 초래하였으며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또한 대토지 소유의 발달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 현상들은 병제(兵制)에도 반영되였다. 당시 의무 병역 제도인 부병(府兵) 제도는 붕괴에 직면하고 있었다. 1592년 일본 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서울에는 수백명 정도의 군대밖에 없었다. 제도상 중앙 상비군은 5만명 내외로 되여 있었다. 수군(水軍)에 있어서도 리 순신 장군이 인솔하는 전라 좌도(左道)의 함대를 제외하고는 사태는 거의 동일하였다. 지방 병제도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편 이 당시 대외 정세는 매우 긴장되여 있었다.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봉건 령주들의 끊임 없는 국내 전쟁 시기—《전국 시대》가 끝나고 전 국(全國)은 대봉건인 풍신 수길(豊臣秀吉)에 의하여 통일되였다. 이 기간에 각 봉건 령주들과 대상인들은 조선, 중국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 제 국과의 무역과 그리고 이와 함께 감행된 무제한한 해적 행위로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였다. 전 국을 통일하여 막대한 병력과 부를 자기 수중에 장악한 풍신 수길은 조선을 정복하고 계속 중국 (명)까지 강점하려는 야욕을 품고 침략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력사적으로 조 중 량국 인민들은 북방 여러 유목 종족들과 남해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후반기에 일본이 우리 나라와 중국 대륙을 침범할 계획을 꾸미였을 때에도 조 중 인민은 공동의 원쑤인 일본 침략자를 물리치는 싸움에 함께 나섰던 것이다.

오래 동안 준비하여 온 일본 봉건 침략자들은 드디여 1592년 4월 13일 우리 조국에 대하여 륙해군 25만 명의 대군으로써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봉건 제도의 기초는 농업이고 략탈 원정은 본질에 있어서 토지 획득이다》라고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강탈자들의 침략의 목적은 조선과 나아가서는 중국의 령토를 강점하고 인민들을 략탈하는 데 있었다. 이리하여 강도적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임진 조국 전쟁이 시작되였다.

적의 침습을 받은 최초 시기에 이를 반대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에서는 지방군과 인민들의 치렬한 항전이 전개되였고 충주와 상주 등지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갑자기 파견된 장수들의 지휘하에 급히 모여든 우리 부대들과 인민들의 항전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 병제의 약점은 도처에서 폭로되였다. 적들은 부산에 상륙한지 20일 후에는 서울을 강점하고 계속 각 도로 군대를 나누어 침투하였다. 적들은 6월 중순에는 황해도 여러 군과 평양까지, 동북으로는 강원도 여러 군과 함경도의 북단까지 침입하였고 남으로는 경기, 충청, 경상도의 많은 군들을 강점하고 도처에서 살륙, 방화, 략탈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 수개월 간에 륙상에서 적들이 우세한 원인은 우선 적들이 장기간의 전쟁 준비와 주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우리측은 비단 해이되고 약화된 병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왕을 비롯한 량반 관료들이 충주 패전의 소식을 들은 후 조국과 인민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일신 일가의 안전을 위하여 도피한 데 있었다.

전쟁 초기에 일시적 우세를 차지한 적들은 단시일 내에 조선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계속하여 명나라로 침입할 것을 야망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이러한 야욕과 망상은 인차 파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측의 불리한 립장은 위기에 직면한 조국의 방위에 궐기한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급속히 극복되였다. 최초의 실패와 후퇴가 반격과 승리에로 전환하는 계기로 된 것은 남해 해상에서의 리 순신 장군의 령도하에 우리 수군의 거듭되는 승리였다.

최초 적의 대군이 침입하였을 때 경상 좌우도의 우리의 수군들은 지휘관들의 무능과 비겁성으로 인하여 교전도 없이 와해되였다.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리 순신 장군의 통솔하에 전라도 수군과 다시 수습 정비된 경상도 수군은 5월 초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친 진격에서 적 수군의 대 소 함선 3백 수십여 척을 격침 격파하였다. 그 중에서도 7월 8일 적 함선 60여 척을 격파한 한산도 해전과 9월 1일 적 함선 400여 척의 주력이 있는 부산 앞바다 싸움에서 적 함선 100여 척을 격침시킨 대승리는 적의 유생 력량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기세를 크게 꺾어 놓았으며 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완전히 우리의 손에 장악케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적의 수륙 병진 계획을 파탄시켰으며 륙지에서 궐기한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 격려하여 전쟁 진행에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수군의 이와 같은 영웅적 위훈은 정의의 전쟁에 일떠선 우리 병사들의 헌신성과 용감성, 거북선을 비롯한 우수한 장비를 가진 우리 수군의 전투력, 그리고 인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리 순신 장군의 고도의 애국주의적 정열과 탁월한 전략 전술로써 이루어진 것이였다.

중앙과 지방의 량반 통치배들이 자기 일신의 안전을 위하여 은신 도주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의 애국적 인민들은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의병이라고 불리웠다. 인민들의 의병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 가

창 간고하였던 전쟁의 첫 시기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였다. 해상에서의 거대한 승리에 고무된 의병들이 도처에서 적을 분쇄 구축하는 과정은 이 해 7월 8월부터 활발히 진행되였다.

당시 평안도 일대에는 조 호익(曹好益), 서산 대사(西山大師) 등의 많은 의병 부대들이 활약하였고 경상도의 곽 재우를 비롯한 많은 의병 부대들은 경상 우도의 여러 군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8월에 의병장 조 헌의 부대는 청주성을 해방하였고 9월 초 원 호(元豪)의 의병 부대는 강원도, 경기도의 각 군을 해방하였다. 연안성 인민들은 리 정암을 주장으로 추대하고 가렬한 방어전에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끝끝내 성을 고수하였다.

도처에서 타격을 받은 적은 남방의 중요 요새 진주성을 공격하고 전라도에 침입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에 처한 적 수군의 운명까지도 동시에 타개해 보려고 기도하였다. 10월 초 진주성에 대한 적의 발악적 공세에 대하여 수비군 수천 명은 김 시민(金時敏)의 지휘하에 성중의 인민들과 함께 만 5주야 간의 가렬한 방어전을 계속하여 수천의 적을 살상하고 끝끝내 이 성을 고수하였다.

함경도 일대의 정 문부 지휘하의 의병 부대는 7,000 여 명에 달하였는바 그들은 통일적인 지도하에 12월 초 길주 쌍성포 전투에서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 전쟁 첫 계단에서 의병들의 투쟁은 수군과 함께 륙지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도처에서 격파되고 곤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욕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으며 도처에서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전국(戰局)의 타개를 획책하고 있었다.

일본 침략자를 반대함에 공동의 리해 관계를 가졌던 명나라는 이 때에 조선에 대한 원병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말 4만 명의 명나라 대군은 리 여송(李如松)의 총 지휘하에 압록강을 건너 남진하였다. 명군의 전쟁 참가는 량국 인민들 사이에 오래 계속되여 온 전통적 친선의 명확한 표현이였다.

1593년 1월 초 조 명 량군은 긴밀한 협동 작전으로 평양성을 해방하고 서울을 향하여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다. 평양성의 해방은 적의 패망을 촉진함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으로 되였다. 1월 말 평양성 해방에 고무된 함경도 인민들의 의병 부대는 길주성을 해방하고 적을 전 도(全道)에서 구축하였다. 남도 일대에서 아군과 인민들의 의병 부대는 패주하는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는 추격전을 가강히 전개하였다. 특히 권 률(權慄)장군의 지휘하에 수행된 인민들의 행주 산성에서의 거대한 승리는 적들의 마지막 환상까지 분쇄하였다. 조 명 련합군 부대는 서울 이남으로 패주하는 적에 대하여 맹렬한 추격을 계속함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이를 부산과 그 근방 일대의 좁은 지역에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간악한 적들은 이 지방을 오래 동안 강점하면서 소위 화평 교섭에 빙자하여 다시 대량의 병력으로 침입할 흉계를 꾸미였다. 몇 년 동안 계속된 휴전(休戰) 상태는 종말을 고하였다. 적들은 마침내 1597년 1월 다시 14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침입하여 왔다. 적들은 수륙 량면으로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아군에 특히 불리하였던 조건의 하나는 우리 수군이 전쟁 재개와 함께 거의 완전히 붕괴된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3도 수군의 통제사(統制使) 리 순신 장군이 적 간첩의 간책과 부패한 통치배들의 당쟁의 화를 입어 전쟁 직전에 그의 직책에서 파면되고 대신에 무능하고 탐욕적인 통제사 원 균(元均)이가 우리 수군의 전투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데 있다.

이 해 7월 우리 함대는 고성 칠천(固城漆川)에서의 해전에서 거의 함대 전부가 패몰되고 원 균 자신도 여기서 전사하였다. 우리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한 적은 수륙 각 전선에서 발악적 진공을 시작하였다. 적의 륙군은 경상도 뿐만 아니라 전에는 발도 들여 놓지 못하던 전라도를 경유하여 북으로 충청도 경내까지 침입하였다. 우리 조국에는 또 다시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순간적 우세는 급속히 소멸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 수호에 궐기한 우리 인민들과 군대들은 재차 래원한 명나라 원군(援軍)과 함께 9월에 적의 주력을 직산(稷山) 전투에서 거의 전멸시키고 패주하는 적을 계속 남으로 추격하였다. 한편 해상에서는 리 순신 장군이 다시 통제사로 임명되여 이 위급하고도 곤난한 시기에 패몰된 함대를 재건하고 이 해 9월, 10 여 척의 소함대로 300 여 척의 적의 대함대에 대항하여 진도(珍島)의 명량(鳴梁)에서 대담무쌍한 결전을 전개하여 적함 100 여 척을 바다에 쓸어 넣었다. 이것이 유명한 명량 대첩(大捷)이였다.

1598년에는 명나라 원군도 더욱 증가되였다. 이리하여 바다와 륙지에서 조 명 련합 부대는 간악한 침략자에게 최후의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괴멸적 타격을 받은 적은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 기회를 노리여 본국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11월(음력) 중순 적들은 300 여 척의 함선에 분승하여 마지막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달 19일 리 순신 장군에 의하여 지휘되는 우리 함대는 명나라 함대와 긴밀한 협동 작전하에 도주하는 적 함선들을 로량(露梁) 해상에서 가로 막고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이 격렬한 섬멸전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치솟는 적개심과 고초된 사기로써 적선 200 여 척을 격침하였다. 이 거대한 승리는 조선 인민이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빛나는 성과였다.

이 해전에서 종시 기함(旗艦)의 선두에 서서 련합 함대를 지휘하여 용전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자이며 천재적 전략가인 리 순신 장군은 류탄(流彈)에 맞아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외국 략탈자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용감하게 수호한… 리 순신 장군들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영예로운 업적과 용감성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신성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 격려할 것입니다》 (전집, 3권, 30페지)라고 하였다.

전후 7년 간에 걸친 임진 조국 전쟁에서 우리 인민들은 중국 명나라 응원군과 더불어 적의 함선 500 여 척을 격침 격파하였으며 적의 유생 력량의 대부분을 섬멸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러한 대타격을 받은 일본 침략자들은 그 후 오래 동안 우리 나라와 중국 대륙을 침범할 흉계를 꾸미지 못하였다.

임진 조국 전쟁은 적의 간악성에서나 전쟁의 장기성에서나 우리 인민의 투쟁의 간고성에 있어서 우리 력사에서 드문 전쟁이였다. 침략자들을 반대한 전체 인민의 투쟁은 그 규모에서나 치렬함에 있어서 전례가 없었다. 이 전쟁에는 각계 각층 인민들이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웠다.

1592년 일본 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전국 각지가 유린되자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체로서 의병을 조직하였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와 같이 광범하게 대중적인 투쟁 조직이 출현한 것은 우리 력사에 처음이였다. 의병 투쟁은 당시의 환경에서 인민들이 창조하였으며, 그 환경에 맞는 옳은 투쟁 형태였다.

의병 부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은 것은 사회의 각 계층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압박 받던 노비 신분인 농노적 농민들과 농노화되여 가는 량인 신분인 국가적 예속 농민들이였다. 이들은 봉건 사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로역과 온갖 봉건적 부담을 두 어깨에 걸머진 사람들로서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임진 조국 전쟁 전 과정을 통하여 치렬하게 전개된 의병 투쟁은 적의 후방을 전선으로 만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견결히 나서도록 고무 격려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은 의병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어려운 전화 속에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였고 도처에서 매 전투마다 직접적으로 방조하여 나섰다. 연안성, 진주성, 행주성 전투 등 가렬한 전투들에서 인민들은 특히 영웅적으로 싸웠다. 또한 인민들은 몇 십명 또는 몇 명이 모여서 혹은 개별적으로,

기회 있는대로, 적을 만나는대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침략자들을 처단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인민들은 자기의 창조적 로력과 대담성과 용감성, 희생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길이 빛나는 당시의 거북선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해군의 우수한 전통에다가 조선(造船) 기술자들의 면밀한 설계와 리 순신 장군을 비롯한 장병들의 다년간의 연구와 실지 경험을 종합한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의 산물이였다.

1597년 적의 재침공 당시 거의 완전히 패몰된 우리 해군은 리 순신 장군의 지도하에 애국열에 불타는 인민들의 창조적 열성과 로력에 의하여 단시일 내에 재건되였다. 그리고 우리 함선들이 미처 재건되지 못하였던 어려운 시기에도 리 순신 장군과 우리의 해군 장병들은 필승의 신심을 잃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명량 해전에서는 불과 10 여척 밖에 안 되는 소함대를 거느리고 300 여 척의 적의 대함대를 반대하는 싸움에 나섰던 것이다.

해전 력사상 이러한 전투는 일찌기 보지 못하였다.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 전투의 승리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장군이 이러한 대담무쌍한 전투를 작전할 수 있었겠는가.

전후 7년 간에 걸친 임진 조국 전쟁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와 원쑤를 반대하며 곤난을 극복하는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력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투쟁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는 이미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조국의 력사는 외래 침략자들의 침범이 있을 때마다 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로 충만되여 있다.

일찌기 7세기 초엽에 수(隋)나라 봉건 통치배들의 침략 군대를 반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을지 문덕 장군의 지휘하에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적을 격파하였으며 7세기 중엽에는 당(唐)나라의 수차에 걸친 대거 침략을 연개소문 장군의 지휘하에 격파하였다. 11세기 초에는 대거 침입한 거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들은 영웅적인 투쟁으로 이를 구축하였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강 감찬을 비롯한 탁월한 장군들의 지도가 있었다. 13세기에는 봉건 몽고(원)의 전후 6차에 걸친 침략을 반대하여 인민들은 불요불굴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조국을 그들의 유린으로부터 수호하였다. 또한 14세기 우리 해안을 집요하게 침범하고 략탈하던 《왜구》를 반대하여서도 인민들은 견결하게 싸웠던 것이다.

임진 조국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애국적 헌신성과 용감성, 불요불굴성은 그 이전의 선조들의 애국주의적 전통의 뚜렷한 계승 발전으로 된다.

일본 강탈자들의 침략의 목적은 전기한 바와 같이 조선 강점에 머물은 것이 아니라 계속 중국(명)을 강점하고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데 있었다. 일본 침략군이 조선의 각지를 유린하고 계속 북진한 것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명나라는 일본의 강도적 침략군이 발악하고 있을 때 원병을 파견하였다. 명나라 원병은 우리 수륙(水陸)군과 함께 련합군을 형성하고 우리 강토에서 적을 마지막으로 구축하는 순간까지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이 투쟁에서 조 중 인민은 량국이 순치의 관계에 있으며 조선에 대한 위협은 곧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 중 인민의 전통적인 우호적 관계를 일층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봉건적 착취 계급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당시 조건하에서 조 중 량국 인민들의 친선 관계는 그의 발전을 저애 당하였고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 조국 전쟁은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 중 인민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한 전통을 이룩하는 데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선조들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보다 풍부히한 임진 조국 전쟁에서 다시 한번 발휘된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전통은 력대로 계승되였다. 전 국 각지의 방방곡곡에는 영용한 장군들과

인민들이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전적지와 유물들이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으로 보존되였고 영예로운 투쟁 업적은 기록으로, 전설로, 노래로 전하여 내려 왔다. 과연 조선 사람으로서 어느 때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리 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전통은 외래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이러한 애국적 전통은 무엇보다도 19세기 후반기 미제를 위시한 서구라파 자본주의 침략자들이 조선으로 침입하여 왔을 때 이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서 발현되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던 시기에 부패 타락한 봉건 통치배들의 매국적 행위와 갖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인민은 임진 조국 전쟁 당시에 인민이 창조하였고 명명한 명칭 그대로의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에 궐기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병 투쟁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이후에도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이러한 유구한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전통은 그 후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의하여 지도되게 됨에 따라 계승되여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되였다. 특히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조선 인민의 유구한 애국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로 발전되였으며 이와 함께 조 중 인민간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는 더욱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로 발전되였다.

조선 인민은 자기 선조들과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우리 당의 지도 밑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의 조선 전쟁에의 참전과 우리 인민 군대와의 그들의 공동 투쟁, 지난 8년 간 우리 조국 땅에서 남긴 그들의 불멸의 업적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조 중 량국 인민의 전통적인 친선과 단결을 전례 없이 강화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위한 조 중 량국 인민들의 꾸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 남조선으로부터의 철퇴를 거부하며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북진》 소동을 고취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 인민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침략적인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 세력을 대변하는 기시 정부는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며 리 승만, 장 개석 도당들과 련계를 맺으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중국의 대만 해방, 극동 평화를 위한 조 중 인민의 공동의 위업을 장애하여 나서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떠한 도발적 행위도 정의의 위업을 위한 조 중 량국 인민의 전진을 가로 막지 못할 것이다. 오늘 중국 인민 지원군은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로부터 주동적으로 철거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우의로 굳게 단결된 조 중 량국 인민은 앞으로도 반드시 공동의 원쑤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정의의 위업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전통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격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륭성하는 자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은 비상한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매일 매 시각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거대한 승리와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였으며 중첩되는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공고화되고 발전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의 발현인 것이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독일 로동 계급의 첫 혁명과 그의 교훈

박사 헬무트 콜베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혁명적 영향하에서와 황제—제국주의 제도의 완전한 군사적 패배로 말미암아 1918년 가을 독일에서는 첨예한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다. 근로 인민은 이미 더는 그전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지배 계급도 그 이상 더는 낡은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게 되였다.

독일 독점 자본가들과 융케르들은 헌법을 개혁하며 정전 담판을 개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앙양된 혁명 운동을 저지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위급한 정세하에서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군주 정체와 제국주의적 계급의 통치를 구원하는데 협력하여 나섰다. 그들은 《대중에게 양보하지 않기》(샤이데만) 위하여 서기 장관(書記 長官) 샤이데만과 바우에르를 마지막 황제 정부에 들여 보냈다.

스파르타크단은, 친 정부적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자본주의의 구원자로서 정부에 참가함으로써 대두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회주의자들은 《병석에 누운 자본주의를 돌보는 의사》의 역할을 놀고 있다고 적절히 평가하였다.

좌익만이 독일에 있어서 혁명적 강령을 작성하기 위하여 혁명적 위기를 포착한 유일한 력량이였다. 1918년 10월 7일, 베를린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진 스파르타크단 전국 대표회가 개최되였는바 여기에는 브레멘의 좌익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전국 대표회는 국제 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에서 1918년 가을 독일의 혁명 정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독일 제국주의의 패배는 독일 헌법과 독일의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으며 1848년 혁명에서 독일 부르죠아지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새로이 해결할 혁명 정세를 조성하였다》. 동시에 대표회는 근로 대중에게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를 위한 투쟁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제거하는 투쟁에 궐기하여 나설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호소문은 또한 모든 정치범의 즉시 석방과 계엄령의 즉시 해소, 모든 은행 자본, 광산, 제철소와 대 지주의 토지 몰수 등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여, 이것의 달성은 아직 당신들의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지배 계급과 그의 대리인들이 떠들고 있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의회, 선거권 혹은 국회 의원—대신과 그리고 다른 어떤 기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인민의 모든 적들의 물질적 기초 즉 토지 및 자본 그리고 무력과 사법에 대한 지배를 반대하는 것이다》. 전국 대표회의 이 강령은 당시 정치 정세를 심오하게 분석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것이였다. 여기에서는 혁명의 두 단계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참작하고 있는바 제국주의 전쟁의 즉시 종식을 위한 투쟁과 황제—제국주의 군주 정체의 전복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강령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물질적 기초의 제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로서의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의 철저

한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크단과 브레멘의 좌익 급진파들은 이것을 11월 혁명의 목적과 지침으로 삼았다. 그들은 정당한 강화의 체결을 가능케 하며 근로 인민에게 민주주의와 행복을 가져다 줄 유일하고도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11월 혁명은 이미 패배한 전쟁의 무의미한 지속을 반대하는 킬의 해병들의 봉기를 계기로 하여 1918년 11월 초에 시작되였다. 여기로부터 혁명은 전 독일에 전파되였다. 스파르타크단을 선두로 하여 로동자들과 병사들은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모범을 따라 자체의 전투적 기관인 쏘베트들을 창설하고 황제 정부와 아울러 군주 정체를 전복하고 일련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였다.

낡은 통치 기구는 비록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로동 계급의 혁명적 력량은 낡은 국가 기구를 완전히 청산하고 혁명의 계속적인 행정에서 부르죠아지와 융케르들의 지배 세력을 분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였다.

로동 계급과 로동자—병사 쏘베트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원하였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알고저 하였다. 그들 중의 다수는 투표 용지만을 가지고도 정권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로동자와 병사 대중이 혁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과 그들의 부르죠아의회에 대한 환상을 리용하여 사이비적 사회주의 관용어를 쓰면서 로동 운동내에 기여들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이라는 기만적 구호밑에 그들은 독일 독립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민 참정 위원회》라는 신 정부를 조작하고 그를 리용하여 쏘베트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리하여 에베르트와 하제 도당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신복자로서 혁명 운동을 좌절시키며 반동적 착취 계급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죠아 국가의 선두에 나섰다.

11월 혁명은 만약 로동 운동의 선두에 맑스주의 당이 서 있지 않고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주되는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과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아주 똑똑히 보여 주었다.

스파르타크단과 브레멘의 좌익 급진파들은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시종일관 혁명적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 있었다. 오로지 그들만이 제국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주권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자들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나 그것만으로써는 혁명적 당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독일 11월 혁명은 맑스—레닌주의 당이 없이는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혁명의 기본 문제인 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르죠아—민주주의 변혁을 철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18년 12월 16—21일 간에 베를린에서 열린 전국 쏘베트 대회가 이것을 똑똑히 실증하여 주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일체 정권을 대표하는 독일 로동자—병사 쏘베트 전국 대표 대회는 다른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는 일체 립법 및 집행권을 인민 참정 위원회에 양도한다》. 이 결정으로써 전국 쏘베트 대회는 정권 문제를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 세력에 유리하게 결정하였다. 이것은 독일에서의 제국주의의 지반을 타파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를 닦아야 할 11월 혁명의 기본 과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반혁명은 국민 회의 선거까지 혁명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전국 쏘베트 대회가 끝난 후 곧 로골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1919년 1월 초에 베를린에서의 류혈적인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위대에 타격을 주었으며 엄엄하게 무장한 《의용군 동맹》부대의 비호하에 1월 19일에 진행된 국민 회의 선거에서 부르죠아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독일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은 실패로 끝났다. 독일 11월 혁명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변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혁명은 그 성격으로 보아 일정한 범위에서 프로레타리아적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였다. 비록 실패는 하였으나 11월 혁명은 독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페지를 차지한다. 11월 혁명은 독일 농민 전쟁 이후 가장 큰 혁명적 대중 운동이였으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독일 로동 계급의 첫 혁명이였다.

혁명적인 대중 투쟁의 결정적 성과로서 11월 혁명의 불'길 속에서 독일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 당의 창건자들은 로동 계급에게 충실하며 시련을 이겨낸 지도자들, 례컨대 칼 리브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그, 프란츠 메링, 클라라 체트킨, 리오 요기헤스와 윌헬름 피크들이다. 독일 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독일 로동 계급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전투적 조직을 가지게 되였다. 독일 공산당은 와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의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였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의 통일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여 왔으며 또 그것은 독일 사회 통일당의 창건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로 되였다. 독일 사회 통일당의 령도하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로동 계급은 11월 혁명의 혁명 투사들이 남긴 뜻을 유감 없이 실현하고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정치 및 경제적 기초를 궁극적으로 소멸할 수 있었다.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평남도 당 단체

조선 로동당 평안남도 위원회
위원장 피 창 림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는 우리 도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발 16만 정보에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논 관개 면적을 새로 6만 정보 확장하여 16만 정보에 도달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화전을 제외한 도내 전체 논 밭에 관개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이다.

당이 제시한 이 과업의 해결은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농업 기술 혁명에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이 과업의 실행은 무엇보다도 농업 생산을 급격히 제고시키고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할 것이며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의 급속한 생활 향상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관개 체계의 확립은 우선 농작물의 생육 시기인 4—6월에 한재가 반복되고 여름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게 하여 농촌 경리 발전을 적지 않게 제약하여 온 도내의 불리한 농업 기후적 특성을 극복하고 안전하고도 높은 수확을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종 체계에서 일대 변혁을 초래하여 밀 재배 면적은 3배로 확장되고 맥류, 옥수수의 2모작 지대가 확장됨으로써 토지 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며 작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는바 이것은 포전이 정리됨과 아울러 전야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관개 체계의 확립은 저수지를 리용한 광범한 소형 발전소들의 건설을 통하여 농촌의 전기화 문제도 급속히 촉진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도에서는 관개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될 1961년에 가서 농업 생산을 금년 실적에 비하여 250% 이상으로 제고시켜 신 관개 면적을 포함하여 평균 정당 수확고를 최소한 논'벼는 10톤 이상, 옥수수는 6—7톤, 면화는 3톤 이상, 맥류는 5톤 이상에 도달시키며 농호당 평균 6톤 이상의 알곡과 2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농업 협동 조합들은 조직 경제적으로 비상히 공고화될 것이며 또한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농촌 문화 건설이 더욱 급속히 촉진됨으로써 농촌은 그야말로 인민들의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휘황한 전망이다. 이것은 협동 경리의 전야에서 생산을 흘러 넘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당과 인민의 기대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거보로 될 것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부유한 중농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한 당의 정책을 빛나게 구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과업의 해결을 통하여 농민들은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우리 당의 농촌 진지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자연 개조 사업은 오직 로동 계급의 적극적 지원하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로농 동맹의 힘이 과시되고 그것이 더욱 더 불패의 것으로 강화 발전될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평남도 당 단체는 9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과업의 해결로 귀착시킬 수 없었다. 도 당 단체는 그를 목전 자기 앞에 제기된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으로 인정하였으며 해당한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방대한 것이며 그의 실행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59년 4월까지 수행하여야 할 우리의 과업만 보더라도 6만 정보의 밭과 1만 5천 정보의 논에 관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불과 반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제가 36년 간에 걸쳐 우리 도에서 해 놓은 관개 면적의 근 7배나 되는 것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75개소의 저수지, 574개소의 양수장, 113개소의 보를 만들어야 하며 1,690개 대상에서 678만 립방메터의 흙을 파고 14만 여 립방메터의 암석을 까내야 하며 최소한 1만 개 이상의 구조물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 공사에는 전동기 550 여 대, 변압기 800 여 대, 발동기 300 여 대, 양수기 580대, 축력 양수기 1,500 여 대 등 각종 양수 동력 설비가 소요되며 1만 여 톤의 쎄멘트, 2천 여 립방메터의 원목, 1만 톤의 철근, 550 여 톤의 철판 등 실로 방대한 자재가 요구된다.

또한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400만 공수의 로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공사를 맞이한 우리의 주체적 조건은 어떠하였는가?

우리에게는 물론 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극히 유리한 조건들이 충분히 준비되여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부 곤난한 조건도 없지 않다.

유리한 조건들이란 우선 자기들의 실지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관개 체계 확립의 유리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열렬히 요구하여 궐기한 도내 농민들의 드높은 적극성, 농민들에게 주는 로동 계급의 강력한 지원,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도내 농촌 경리와 통합 사업을 통하여 조직 경제적으로 가일층 강화된 농업 협동 조합들, 지난 기간 대규모적 평남, 강남, 승호 관개 공사를 비롯한 대 소 공사를 통하여 얻은 귀중한 경험들과 그 행정에서 준비된 일정한 관개 부문 기술 력량의 존재, 그리고 대동강, 청천강을 위시한 대 소 하천들과 산간 계곡이 많은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들이다.

곤난한 조건은 주로 중요하게 부닥치고 있는 로력 발란스의 긴장성이였는바 그것은 추수, 추파 맥류 면적의 대대적 확장, 추경, 자급 비료 증산 등 당면 영농 사업을 위하여서도 도내에서 약 8백만 명의 로력 부족을 느끼고 있는 오늘 이 문제들의 수행과 병행시켜 새로 4백만 공수의 로력이 요구되는 이 대공사를 단시일 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였다.

우리의 사업량이 방대하고 시간이 긴박한 반면에 로력이 부족한 이 사정은 우리의 과업 해결에서 일정한 긴장성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도 당 단체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백방으로 리용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곤난한 조건들을 타개하고 우리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도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도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보수주의와 소극성의 온갖 표현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이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작업의 기계화를 최대한으로 추진시키는 것을 이 과업 해결의 기본 고리로 포착하였다.

※　　※

평남도 당 단체는 이 사업을 전 인민적 운

동으로 성과 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9월 전원 회의 결정을 대중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고 대중을 그의 실행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 단체들의 전투적 기능과 당원 및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장들에 림시 당 단체와 민청 단체들을 조직하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 당 단체의 지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보수주의 및 소극성을 철저히 극복하는 문제였다.

9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 착수하게 되였을 때 벌써 은산군, 대동군, 강서군, 중산군을 비롯한 일부 시, 군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보수주의와 소극적 현상이 엄중하게 발로되였다.

그들의 의견은 추수 작업과 추파 맥류 파종 사업이 밀리고 있으며 추경 작업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일단 끝내고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자는 것이였다.

그들은 로력 조직의 합리적 개편, 기계화의 촉진 등 새로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게 로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극히 소극적으로 대하려 하였으며 공사 규모의 방대성과 급속한 속도에 대하여 비명만 올리면서 구체적 사업 조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은산군에서는 10월 15일까지만 하여도 군내 58개 대상중 불과 15%밖에 착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당 정책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므로 도 당 단체는 각 시, 군에 지도 일'군들을 파견하여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침투시키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의 산생 원인, 그의 해독성과 극복 방도를 광범히 해석 선전하는 한편 보수주의적 관점에 물젖은 일'군들이 제기한 《곤난한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를 해결하도록 하는 구체적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하였다.

지도 사업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주의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그곳들에는 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가 풍부하였다. 례하면 우리는 간단한 로력 조직의 개편과 작업 조직의 합리화로써만도 로력 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즉 로력 조직에 있어서 옥수수 탈곡, 연초 말리기 등 쉬운 작업들은 작업에서 유리되여 있던 년로한 부대 로력으로 해결케 하고 추수, 추경 작업 등에는 장년 로력을 붙였으며 관개 건설에는 청년들을 배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광범한 로력 원천을 탐구 동원하여 힘이 드는 정도에 따라 배치한 기초 우에서 그들의 작업 능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영농 작업에서 현지 퇴적장, 현지 탈곡 등을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특히 중산군, 강동군 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관개 건설장과 영농 작업장들에서 전반적으로 현지 공동 식사를 조직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녀성들을 번잡한 가무 로동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작업 능률을 150% 이상 제고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업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지도 사업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작업 공정을 계단식으로 조직함으로써 당면 주요 사업에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로력 배치에서의 산만성을 극복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옥수수를 수확하면 그의 운반 작업과 탈곡 작업 등을 계속적으로 동일한 로력이 진행하는 등으로 겨울에도 능히 할 수 있는 탈곡 작업 등을 가을의 바쁜 시기에 진행하여 이에 적지 않은 로력이 투하되여 왔다. 우리는 이의 개선에 착안하고 작업을 계단식으로 조직하고 로력을 계단별로 집중시키도록 지도하였다.

즉 옥수수를 수확하는 로력은 계속 수확 작업만 진행하여 나가며, 쌓아 놓은 수확물들은 년로 부대 로력, 학생, 사회 보장 대상자 중

작업을 요구하여 나선 일'군들로 운반케 하였으며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작업은 착수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로력을 당면한 작업에 집중 배치한 결과 이로써 금년 결빙기 전까지 우리 도에서는 전체 토량 공사를 100%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로력과 작업 조직의 개편으로 로력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결된 결과 보수주의적 일'군들이 크게 내세웠던 로력 문제에서의 곤난성은 초보적으로 극복되였으며 관개 건설 사업을 다른 모든 영농 작업과 병행시켜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그렇게 용이하게 극복되지는 않았다. 로력 문제에서의 긴장성이 풀리게 된 조건하에서 보수주의적인 일부 지도 일'군들은 설계의 《신비성》을 들고 나섰다.

그들은 설계가 힘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오직 기술 일'군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설계 일'군들에게만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들은 대중의 위대한 힘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대중이 기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물론 많지 않은 설계 일'군들에게만 의거하려는 그들의 사업 방법으로써는 설계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를 구실삼아 설계 문건이 없으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도 당 단체는 설계 부문에 존재하는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문제가 이 사업 추진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의 극복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도 당 단체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설계 사업은 오직 농민 대중의 광범한 참가하에서만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발동시켜 수원의 확보 방도, 관개 설비와 기자재의 비치 장소, 수로망의 포치 계획 등을 집체 토의케 하고 농촌 지식 청년들로 하여금 관개 략도를 작성케 하였으며 이 기초 우에서 책임 간부, 설계 기술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 설계 사업을 추진시켰다. 이것은 지대적 조건에 정통한 광범한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현지 조사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고 설계를 단시일 내에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강남군, 순안군들에서는 설계 사업을 예정보다도 1개월 이상 앞당겨 보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력이 동원되고 설계 문제가 해결된 결과 도내 각 시, 군들에서는 착공하는 대상이 급격히 증가되여 갔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문제는 착공한 매개 대상들에서 작업의 최대한 기계화, 특히 관개 공사에서 로력 투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토공 공사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최소의 로력을 가지고 최단 기간내에 될수록 많은 관개 건설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기계화 문제에서도 주되는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일부 지도 일'군들은 그들이 직접 기계를 리용한 경험이 없고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데로부터 기계화 역시 곤난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기계화의 곤난성을 운운하는 견해에 추종하면서 목재 기타 자재의 부족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 자재들이 농민들의 예비 발굴에 의하여 해결되자 그들은 또한 형식적으로 기계들을 만들어만 놓았을 뿐 기술의 부족을 운운하면서 그의 리용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의 투쟁은 이번에도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에 결정적 반격을 가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기양 관개 트레스트 제 4 사업소 로동자들은 목조 기중기 리용의 봉화를 들고 종전의 평균 2립방메터의 토공 작업으로부터 20립방메터까지 제고시켜 이를 기양 관개 전 지구에 보급시킨 결과 공사에 소요되는 로력을 계획보다 10만 명 이상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강동군 도덕 지구 공사장에 동원된 건설자들도 350대의 각종 목조 기중기를 창안 도입하여 1인당 최고 30립방메터의 기록적 성과를 내고 등'짐 작업을 일소하였다.

도 당 단체는 이 발기들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각 건설장의 일'군들을 이 공사장에 몰아 견학과 기술 전습을 조직하고 그를 전 도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상원군을 비롯한 도내 각 건설장들에서는 자동식 삭도, 목조 레루, 따찌까, 밀차, 축력 불도젤 등 소기계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으며 전 도적으로 현재까지 예견된 로력의 34%가 동원되였는데 작업은 총 공사의 81%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 기계화는 우리에게 근 200만 공수의 로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준 셈이다.

우리의 경험은 당이 제시한 관개 공사의 기계화, 우선 소기계화의 전반적 도입이 로력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질과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기계화 수준의 가일층 제고로써 소요 로력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축감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보수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극복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극복은 오직 심각한 사상 투쟁과 함께 당 중앙 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정확한 지도 방법——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며 곤난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을 발동시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타개하여 나가는 정확한 지도 방법을 이에 결합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 ※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서 특히 기양 관개 공사장과 중화, 룡강, 순천군을 비롯한 도내 농업 협동 조합들을 현지 지도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이상과 같은 초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토의 사업을 통하여 각 건설장들에서는 더욱 높은 혁명적 열성이 파도치고 있다.

강남군 동산 지구 관개 공사장 청년들은 편지에 고무되여 작업 능률 1,000% 제고 운동을 전개하여 40만 립방메터에 달하는 토공 공사를 불과 8일 간에 완수하여 수로 공사를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수행하였다.

순안군, 순천군 농민들은 견룡, 자산 저수지들에 급수하기 위한 인수로 굴착 작업에서 4만 립방메터의 토량을 가진 수로 공사를 1월 27일에 완료하였으며 평원군, 숙천군, 강동군 도덕 지구들에서는 기본 수로 공사가 완료되였다.

전체 도적으로 벌써 총 토공 공사의 81%에 해당한 555만 립방메터가 수행되였는바 이는 작년 1년 간 공사 전량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자이다.

이처럼 앙양되고 있는 대중의 로력적 열성——이것은 우리의 과업 해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기본 담보이다.

도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 편지 토의 사업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결함들——로력 문제, 기계화 문제, 기술 문제들의 해결 분야에 존속되고 있는 결함들과 보수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 당 단체는 9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 해결의 기본 고리는 앞으로도 계속 로력 문제의 옳바른 해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의 적기 보장, 자급 비료 증산, 추경의 보장과 현물세의 기한전 납부 등 당면한 주요 농촌 사업의 성과적 해결을 념두에 두면서 지도를 현장에 접근시켜 로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작업 조건을 빈틈 없이 지어 주는 등으로 작업 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락후한 작업 방법이 적지 않게 지속되고 허다한 로력이 랑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일체 가능성을 총 동원하여 작업을 기계화하며 기계화 수준을 계속 높여 로동 생

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의 창의 고안 운동을 적극 지지 장려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구조물의 시공과 양수장 운영 등 앞으로 부닥칠 기술상 애로를 예견하면서 현존 기술 기능공들을 핵심으로 그 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 계획 밑에 추진시킬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으며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당 단체는 특히 지도 일'군들에게 당 정책 관철에서 혁명성을 발휘하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제때에 극복하도록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력사적 위업 달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다.

황주'벌에서의 자연 개조 사업

우리 황주군은 산이 적고 하천들이 발전된 준평야 지대이다. 평야 지대는 대동강 하류와 재령강 류역인 서남부에 펼쳐져 있다. 산은 동북부에 있고 여기로부터 서남부 평야 지대 중심으로 황주천과 매상천이 흐르고 있다.

대동강에 만조가 되면 짠물이 매상천으로 밀려 올라 오므로 약 500정보에 달하는 땅은 황무지로 되였다. 또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동북부 산지대의 물이 전부 황주천과 매상천에 모여 들기 때문에 황주군은 항상 홍수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 아흔 아홉 고비로 구비쳐 흐르는 매상천은 적은 비에도 범람하여 하천 류역 일대의 밭들에 종종 큰 수해를 끼친다.

이 반면에 또 황주군에서는 한재도 심하다. 군내 경지 면적의 71%는 밭이 차지한다. 토질은 점토질, 적색 점토질, 사질이다. 년 강우량은 750—850미리란 매우 적은 량인데 그것도 7—8월에 많이 오고 봄에는 적다.

그러한 결과 적색 점토질 지대는 한발 때문에 립종 못하는 때가 많다. 1957년도에만 하여도 884정보나 되는 많은 면적은 재파까지 하였어도 립종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초래되는 한재와 수해를 방지할 데 대한 문제는 군내 농민들의 절실한 념원으로 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 농민들은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의 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밭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 *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에는 1만 2,000정보의 몽리 면적을 가지는 황주 지구 관개 공사를 1959—1961년 기간에 완공하며 어지돈 관개 공사를 2년 간 기간 단축하여 1960년부터 급수를 보장할 것이 지적되여 있다. 이 공사들이 완공되면 우리 군은 전 경지 면적중 논이 60%를 차지하는 답작 지대로 전변되게 된다.

그러므로 군 당 단체는 군내 농민들을 이 공사들의 완공에 적극 참가시키는 동시에 우선 현존하는 밭 면적들에 관개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공사 계획을 작성하여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1959년도에 전 밭 면적의 53%에 해당되는 9,075정보에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1960년도까지에 완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군적으로 보아 상당히 방대한 건설 공사이다. 즉 1,000정보에 관개하게 될 송호 저수지 공사를 비롯하여 대 소 12개의 저수지와 47개의 양수장을 건설하게 된다. 건설 공사 대상은 총 59개인바 그에서 채굴되는 토량은 약 70만 립방메터이며 이에 소요되는 로력은 연 32만 명에 달한다.

해발 33메터나 되는 진등'벌을 비롯하여 37메터의 높이에까지 3—4단의 양수 시설로써 관수하게 될 이 공사에는 54대의 전동기, 328톤의 쎄멘트와 기타 철재 및 목재 등 막대한 자재가 소요된다. 이것은 용이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이 공사를 완수한다면 황주군의 농촌 경리는 류례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황주군이 처한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밭 관개 체계 확립으로써 얻게 되는 유리성과 발전 전망은 참으로 거대하다.

밭 관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선 해마다 골치를 앓아 오던 가물과 홍수로 인한 자연 피해를 방지하고 황주'벌을 흉풍을 모르는 알곡 생산 지대로 전변시키게 된다. 속담에 《꿩 먹고 알먹기》라는 말과 같이 저수지를 파서 밭에 물을 주니 한재를 방지할 수 있고 저수지 공사를 통하여 하천을 개수하며 저수지로써 하천을 조절하니 홍수 범람을 방지하게 되므로 2,500 여 정보의 수해 지역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

밭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수로 공사를 통하여 방대한 토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바 이를 통하여 720정보의 밭이 논으로 되며 120정보의 토지를 쟁취하게 된다. 또한 짠물이 침습하던 500 여 정보의 황무지도 옥답으로 전변될 것이다.

밭 관개를 확립하게 되면 작물 배치를 다수확에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적색 점토질 지대인 진등'벌 3,500정보를 비롯하여 전체 경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밭은 밀 재배 지대로 전변시키며 사질토 지대인 선봉리, 천주리 등에는 면화를 많이 재배할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작물 배치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곧 토지 리용률을 더욱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밀 재배 지대에서는 2모작 면적을 확장하고 간혼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167%인 토지 리용률을 248%로 제고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명년도에 밀은 정당 평균 6톤 이상, 벼는 정당 평균 10톤 이상을 생산하여 알곡 총 생산고에 있어서 금년도의 약 5배에 달하는 25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밭 관개 체계 확립은 비단 알곡 생산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공예 작물 재배에서와 토질 개량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밭에 관수하는 것은 면화의 다수확에 유리함은 물론 황주의 명산인 사과 다수확의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 군에서의 과수 면적은 5개년 계획 기간에 3,000정보에 달하게 된다. 완경사지까지 양수하여 관수함으로써 주로 경사지에 재배하게 되는 과수 생산에서보다 많은 다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군은 일제의 략탈적인 영농법에 의하여 80%의 토지가 산성화되였는바 밭 관개 체계 도입은 이 산성화된 토질을 개량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놀게 된다. 소석회와 석회 질소 등의 시비와 함께 정상적으로 관수한다면 염성을 제거하고 토질을 개량하게 된다.

밭 관개 체계 확립은 농촌의 전기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군내에 건설되는 저수지를 리용하여 11개의 소규모 발전소가 건설될 것인바 승리 저수지에 건설될 발전소에서만도 3,000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황주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전력과 거의 같은 량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력을 받음이 없이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력만으로도 능히 농촌에 전등을 가설하고 탈곡 작업을 비롯한 영농 작업들을 전기화할 수 있으며 지방 산업 공장들의 동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거의 매년 있는 가물과의 투쟁에 소요되던 로력을 절약하게 된다. 금년에만도 가물 때문에 수백 개의 우물을 파고 물을 날라 관수하는 데 소요된 로력은 연 24만 명이며 1,550대의 자동차가 동원되였다.

또한 많이 건설되는 저수지에서 담수 양어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다. 1959년도에 담수 양어로써 400 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논이 확장됨과 관련하여 논판 양어를 광범히 실시한다면 1,600 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발 관개 체계의 확립은 우리 황주군의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유익하고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　　*

군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하에 발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 공작을 지난 봄부터 진행하여 왔다. 우리들이 진행한 준비 사업에서 효과를 거둔 것은 발 관개 체계 확립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리성, 군내 농촌 경리의 발전 전망을 농민들 속에 해석 침투시키며 발 관수가 수확고를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실지 경험을 통하여 인식시킨 그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사상 동원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5,000 여 정보에 국부 관수를 실시하여 발에서는 평균 수확고의 4배에 달하는 다수확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들로 하여금 발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케 하였으며 금년도의 방대한 관개 공사를 기한내에 완공할 굳은 결의를 채택케 하는 물질적 담보로 되였었다.

그러나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는 반대로 초기에 일부 군급 기관 지도 일'군들은 적지 않게 동요하였었다. 그들은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을 접수한 다음에도 황주'벌 관개 공사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에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만 기대하면서 자체로 그 공사를 추진시킬 데 대하여 거의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리유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로력과 세멘트, 철재 및 목재 등의 량이 방대하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의 낡은 기준량으로 계산하고 모든 현상을 피상적으로 관찰한다면 우리 군의 력량으로써는 도저히 공사에 소요되는 로력 예비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지도 일'군들은 앉아서 우에서 해 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믿지 않고 낡은 기준량 앞에 굴복한 보수주의의 표현이였다.

군 당 위원회는 우선 지도 일'군들 속에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면서 그들의 낡은 사상 관점을 일깨워 주었으며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공사의 선후차를 가르고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케 하였다.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 발로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사상 투쟁과 함께 군 당 위원회는 우선 금년 봄에 조직된 발 관개 지도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술 력량을 집결하여 시공 대상에 대한 설계를 작성하되 이에 광범한 농민 대중을 적극 인입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한 결과 농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원을 탐구하여 저수지 건설 대상을 결정하였으며 공사의 순차성과 수로 굴설 방향 등에 대하여서도 광범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다수 제기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군내의 구체적인 지형 조건에 알맞게 시공 대상을 결정하며 그의 선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확한 설계를 작성할 가능성을 주었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군 당 위원회는 추수 탈곡 사업이 바쁜 9—10월에는 우선 청년 작업반을 조직 파견하여 보를 막는 등의 소규모 공사부터 추진시키다가 비교적 한가한 11월부터는 전 군적 력량을 관개 공사에 동원할 것을 결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0월 18일, 군 민청 위원회를 통하여 군내 농촌 청년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열성자 회의는 100만 정보의 관개 면적을 확장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청년들이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제고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황주군 농민들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제 기한내에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각 리에서는 청년 돌격대를 조직하여 관개 공사장에 파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59개의 공사 대상 중 이미 32개소가 착공되게 되였으며 농민들과 함께 자연을 정복하는 청년들의 보람찬 로력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당 앞에서 다진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여 나가고 있다. 그들은 작업을 기계화하여 지금까지 한 사람당 하루에 0.8—1립방메터 밖에 못하던 토량 공사를 평균 4립방메터 이상으로 제고시켰다.

군 당 위원회가 청년 돌격대원들의 작업 방법과 지금까지 군내 농민들이 창안 도입한 작업 방법들을 종합 연구한 바에 의하면 능히 로력 기준량을 수배로 높여 금년도의 관개 공사에서 적어도 20 여만 명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발견이다. 즉 토량 운반 공사를 밀차로 기계화한 데서는 기준량을 10립방메터까지 높이고 있다. 또 군내에 가지고 있는 130 여 대의 전동기를 리용하여 멍석 뽐베야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목제 기중기, 따찌까 등을 광범히 제작 도입한다면 로력 기준량을 전반적으로 4립방메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모든 공사장들에서 가능한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리용하여 기계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에 있어서 군 당 위원회는 발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엄격히 립각하여 군내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관개 공사와 그의 기계화 사업을 방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토의하면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민들을 원조할 여러 가지 창발적인 의견들을 제기하였으며 그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황주역 일'군들은 20마력짜리 기관차 급수 시설을 40마력으로 개조하여 70정보의 발에 관수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황주 배전부 로동자들은 로력을 극력 절약하여 현존 인원 39명 중 25명을 관개 공사장에 보내여 전동기 가설 공사를 담당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밖에도 도영 종합 공장 로동자들은 예비를 동원하여 수다한 따찌까를 생산 공급할 것을 결의했으며 또 사무 기관 일'군들은 자기들이 직접 관개 공사에 참가함은 물론 군내에 사장되여 있는 예비 자재들을 탐구 동원할 것을 결의하고 이미 1,200 여 메터의 레루를 얻어내여 건설장에 보냈다.

그 뿐만 아니라 당 중앙 위원회 편지 토의 행정은 농민들 속에서도 커다란 창발성을 불러 일으켰다. 즉 절대 다수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설장에 보내여 관개 공사의 기일을 보장할 것을 토의하고 있다. 례를 들어 칠촌리 내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공동 식당을 조직 운영하여 녀성 로력을 더욱 해방함으로써 20 여 명을 더 공사장에 내 보낼 예비를 찾았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11월부터 군내의 총 력량을 발 관개 도입을 위한 방대한 관개 공사에 동원하며 작업을 적극 기계화함으로써 명년도의 알곡 증산을 위한 일체 영농 준비 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면서도 공사의 기일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찾았으며 지금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지도 일'군들 속에서 발현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제때에 극복하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 단위에서 창조된 경험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작업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방대한 공사를 제 기한내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황주군 당 위원회는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대중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발 관개 체계 도입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 있게 조직 추동할 것이다.

황해북도 황주군 당 위원회

부위원장 김 운세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는 일'군들의 당성에 있다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의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 경험

금년도에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농업 생산에서 대혁신을 이룩하였다. 특히 밭 농사에서 그러하였다. 목화는 최고 정당 5톤, 평균 정당 3—3.5톤, 옥수수는 정당 5—6톤, 밀은 정당 3톤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례년에 비하면 실로 4—5배의 다수확을 거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성과는 조합의 관리 일'군들과 조합원 대중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충실하게 전체 밭 면적의 약 80%에 순환식 양수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나머지 20%에는 90개의 우물을 파서 국부 관수를 실시한 결과이다.

새날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금년도에 실지 경험을 통하여 관개 체계 확립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실로 그것은 우리 나라 농업 기술 혁명에서의 기본 고리이며 농업 생산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　　　*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은 848세대의 농호가 단합된 규모가 큰 협동 조합의 하나이다. 이 조합은 670정보의 논과 320정보의 밭을 가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이 조합 밭에 관개 체계가 도입된 곳은 거의 없었다.

작년 말에 진행된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 때 김 일성 동지는 조합 관리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밭 관개 체계를 확립할 것을 교시하였다.

새날 농업 협동 조합에서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밭 관개 체계 확립에 착수한 것은 지난 겨울이였다.

조합에서는 겨울 동안에 밭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만한 면적에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러 번 토의되였다.

토의 행정에서는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첫째로 랭상모 락종 준비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 준비 때문에 로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둘째로는 동기간의 관개 공사이므로 로동 생산 능률을 그리 높일 수 없다는 등의 리유로써 우선 금년에는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50 여 정보의 밭에만 관개 체계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 완성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이것은 아직 당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견해였다. 관리 일'군들도 처음에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때인 1월 24일에 김 일성 동지가 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량일 간에 걸쳐 조합을 돌아 보시고 밭 관개 체계 도입 계획을 대담하게 확장할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조합 관리 일'군들의 당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케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관리 위원장 김 욱찬 동무를 비롯한 관리 일'군들은 자기들의 처음 계획이 당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것을 깊이 뉘우쳤다.

조합에서는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공사 계획을 확장할 데 대한 문제가 다시 토의되였고 지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업이 진행되였다. 토의 행정에서는 우선 지형이 높은 곳에 어떻게 물을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것과 수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되였다.

이 문제의 해결 방도에 있어서는 주 원순, 유 의진, 정 천석 등 핵심 당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즉 관개 수로에서 퇴수된 물과 척서강 하류의 물을 무명천 결 개울에 끌어 들여 5계단 양수를 한다면 36메터의 등고선에까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그리하여 순환식 양수 체계를 확립하면 320정보 중 240정보의 밭에는 완전히 관수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그 다음 문제로 된 것은 바로 로력 문제였다. 이것이 기본 난관이였다. 240정보의 밭에 순환식 양수 체계를 확립하자면 35리에 달하는 수로를 째야 하며 7개의 전동기 양수장과 4개의 발동기 양수장, 11개의 축력 양수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만 4천 여 립방메터의 토량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먼 앞날에가 아니라 4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의 로력 사정으로 보아서는 전체 로력자 천 여 명이 다 동원되여 한 사람이 하루에 1.5립방메터를 한다 치고도 20일 이상이 걸려야 한다. 그러나 당면한 영농 준비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였다.

일체의 영농 준비 사업을 잘 보장하면서 관개 공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100명 정도의 로력밖에 그에 돌릴 수 없었다. 그렇게 되니 결국 200일 가량의 시일이 걸려야만 관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여서는 도저히 당의 기대에 보답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일'군들 속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동안 론쟁이 벌어졌다. 그러던 결과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다.

하나의 의견은 제 3 작업 반장 송 덕배 동무를 비롯한 적지 않은 관리 일'군들의 견해를 대표한 것이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엄동설한에 언땅을 까내는 공사이므로 한 사람이 하루에 1.5립방메터를 하기도 곤난하므로 결국 100명이 동원되여 기필코 200일 이상이 걸려야 하므로 필경 농산 사업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전의 계획과 같이 금년에는 우선 50 여 정보에만 관개 체계를 도입하고 몇 해를 두고 점차 그것을 완성시키자는 것이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날의 협소한 경험과 낡은 기준량에 매달려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보지 못하는 보수주의적이며 소극적인 견해였다.

다른 하나의 의견은 관리 위원장 김 욱찬 동무를 비롯한 적극 분자들의 견해를 대표한 것이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관개 공사란 바로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에 망라된 애국적인 협동 조합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만큼 그들의 력량을 과거의 낡은 기준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당이 영농기 전으로 이렇게 방대한 공사를 완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만큼 그것을 대중들에게 잘 인식시키고 그들을 옳게 발동시켜 대중적 영웅주의를 불러 일으킨다면 능히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제고시켜 소정된 기일내에 훌륭히 공사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물론 이것은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믿고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려는 혁명적인 립장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초급 당 단체는 처음부터 김 욱찬 동무를 비롯한 적극 분자들의 견해를 지지하였으며 그들이 제기한 전면적 관수 체계 확립의 계획을 실천하는 투쟁에로 조합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관개 공사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일 추울 때인 1월에서 4월 말까지의 어간에 진행하여야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제 기일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초급 당 단체는 조합

원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공사가 당 정책을 관철하려는 투쟁이며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조합원들, 특히 청년들이 궐기하였다. 그들은 관개 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100 여 명의 열성자들로써 《돌격대》를 조직하였으며 방대한 양수장 공사와 인수로 공사를 자기들이 담당 수행할 것을 자원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눈보라 휘몰아치는 넓은 들판에서 언땅을 까내는 간고한 공사가 조합의 젊은 돌격대원들에 의하여 착공되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남에 따라 배촌 양수장 공사장에서 좋지 못한 편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해야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공연히 사람만 못 살게 군다》라고 하면서 훼방을 놀았고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추운 겨울에 공연한 일을 그만두라》고 선동까지 하였다. 그러한 결과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은 동요하면서 가끔 일에서 빠지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전반적 사기가 떨어져서 하루 한 사람이 1립방메터의 능률도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였다. 이런 편향을 그냥 방임한다면 다른 공사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전반적 공사 진척에 저애를 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는 현장에서 돌격대원들의 회의를 지도하면서 이것은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란 것을 거듭 해석 침투시켰으며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서 칠규 동무로 하여금 새로운 로력 기준량을 창조할 당적 과업을 위임하였다.

그러한 결과 서 칠규 동무는 관개 공사에 경험이 많은 오 희찬 동무와 협력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굴진식 작업 방법을 창안하고 쇠정 대신에 참나무 정을 사용하여 마침내 로력 기준량을 평균 3배, 최고 10배까지 제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와 함께 그는 돌격대원들 속에서 난관 앞에 굴복하는 락후한 사상 경향들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끝내 굴진식 작업 방법을 일반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대중적 혁신 운동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렇게 돌격대원들이 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궐기하자 공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갔다. 그런데 해빙기가 닥쳐 오면서 공사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 어제까지 잘 나와 흥겹게 일하던 적지 않은 돌격대원들이 공사장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리유는 이러하였다.

일부 작업반들에서 면화 영양 단지를 만들다나니 이미 마련해 놓은 부식 퇴비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러니 부득불 먼 산에 가서 썩은 락엽을 긁어 오거나 니탄을 캐야 하였는데 로력이 모자랐다. 이렇게 되자 일부 작업 반장들은 《멧돼지 잡으러 간 사이에 집 돼지 범 물어 간다》, 《발잔등의 불부터 먼저 꺼야 한다》고 하면서 돌격대원들을 관개 공사장에 내 보내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들의 견해가 직접 행동으로 표현된 것으로써 극히 위험한 현상이였다.

여기에 또 관개 공사장에서도 더 많은 로력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다. 즉 범당제, 배촌 등 이미 상당히 추진된 양수장 공사장들에서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자 성토한 흙이 무너앉아 더 많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력의 긴장성은 아주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일부 작업 반장들을 포함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문제만은 어떻게 극복할 도리가 없으니 올해 농사를 망치지 않겠으면 이제라도 관개 공사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고집하여 나섰다.

그러나 관리 위원장 김 욱찬 동무를 비롯한 적극 분자들은 이 때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곤난한 문제가 제기될 때일수록 그 문제를 대중과 협의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꼭 뚫고 나갈 방안이 생겨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김 욱찬 동무는 로력 문제를 우선 작업 반장들과 개별적으로 토의하였다.

후퇴 시기에 8명의 가족을 적들에게 학살당한 유가족인 제 6 작업 반장 주 원순 아주머니는 김 욱찬 동무가 제기된 곤난을 이야기했을 때 서슴치 않고 야간 작업을 하여 로력 부족을 타개한다면 관개 공사에 더 많은 로력을 보낼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오히려 그를 위안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역시 같은 유가족인 제 7 작업 반장 유 의진 동무는 낡은 이영을 벗겨 부식 퇴비로 만든다면 먼 거리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므로 그렇게 많은 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반에서는 우선 자기 집 이영부터 벗겨 쓰겠다고 제기하는 것이였다.

조합 관리 일'군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자신심을 얻게 되였다. 핵심 당원들이 당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곤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했을 때 간부들은 더욱 마음이 든든하여졌다.

곧 작업 반장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처음 여러 가지 론쟁이 있었으나 결국 주 원순 아주머니를 비롯한 핵심 당원들의 제의에 따라 조합원들을 야간 작업에 궐기시킬 것이 토의 결정되였다.

그날 밤부터 작업반들에서는 야간 작업으로 부식 퇴비를 만들면서 더 많은 로력을 관개 공사장에 내 보내게 되였다. 그리하여 관개 공사는 계속 진척되게 되였으며 통수식을 앞두고 더욱 힘차게 추진되여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 확장을 반대한 관리 위원회 일부 일'군들은 5단 양수를 하여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뽕나무 밭을 못쓰게 한다는 구실 밑에 2단 양수만을 예견하여 수로를 굴설케 하였다. 그러한 결과 36메터 등고선에까지 물을 끌어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높은 위치에 있는 100정보의 밀밭 중 30정보에도 물을 줄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보수주의가 비판을 받고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목격하면서도 용이하게 극복되지 않았으며 계속 집요하게 대중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였다. 보수주의를 결정적으로 분쇄함이 없이는 공사를 기한내에 완공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는 관개 공사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 그간의 진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면서 당원 대중 속에 다시 한번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침투시켰으며 높은 당성으로써 공사를 기어이 관철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대중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와 함께 초급 당 단체는 대중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전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한 결과에 조합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영농기 전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결의하면서 홰'불을 내걸고 야간 작업에 궐기했으며 농산 작업 반원들도 이미 개별적으로 통수를 개시한 관개 용수를 리용하여 적은 로력으로 속한 시일내에 면화 영양 단지의 이식을 끝내고는 관개 수로 굴설 작업과 우물 파기 공사에 적극 동원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끝내 보수주의와 동기간의 악 조건들을 성과 있게 물리치면서 소정된 시일내에 계획했던 관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이 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 ❊

관개 체계 확장을 위한 사업은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방대하고도 복잡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에서 보수주의,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런 난관도 오늘 당의 령도하에 단합된 조합원들의 힘으로써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다만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는 일'군들의 당성 여하에 달려 있다. 새날 농업 협동 조합원들이 짧은 기간에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방대한 공사의 완공을 보장할 수 있은 기본 요인은 당 정책에 대한 충실성이였다.

일편단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조합 지도 일'군들과 핵심들의 높은 당성만이 전체 조합원들로 하여금 삼동(三冬)의 설한(雪寒)과 보수주의, 소극성 기타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새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가 제기한 100만 정보의 관개 체계 확립에 대한 결정을 받들고 나머지 20%의 밭 면적에 관개 체계를 완성하여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새날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
위원장 양 봉주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당 규률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제 3차 전원 회의가 가지는 의의

리 광 섭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는 1950년 12월 21—23일 자강도 강계시에서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현재까지의 우리 당 력사에 있어서 민주 수도 평양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진행된 유일한 전원 회의이다.

이것은 제 3차 전원 회의 당시의 우리 혁명 정세의 간고성의 일단을 말하여 주고 있다. 바로 그 시기는 우리 당과 인민이 일시적 전략적 후퇴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면서 적에 대한 반공격으로 넘어서던 때이다.

이러한 력사적 환경 속에서 소집된 전원 회의는 복잡하고 극히 중대한 과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전원 회의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문제들은 이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현 정세와 당면 과업》에서 명백히 천명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보고는 당시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총화한 력사적 문헌으로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였다. 이 보고 가운데서는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그를 강화 발전시킨 특히 제때에 인민 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육성 강화하여 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조선 인민이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기본 요인들이 깊은 리론적 심도를 가지고 천명되였다. 이와 동시에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전쟁 확대를 위한 침략적 기도를 철저히 폭로하고 이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를 해명하였으며 전쟁이 더욱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된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군사 정치적 전략적 원칙들이 제시되였다. 또한 이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침략 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과 그의 본질을 국제 국내적으로 폭로하여 적들을 고립시키며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해방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인민 군대를 계속 강화하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전시 생산을 확대하며 전선과 후방을 백방으로 공고히 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에는 우리 당이 간고한 시련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자기 대렬을 검열하며 승리적 성과에서 얻은 경험 뿐만 아니라 자기 대렬내에서 생긴 결함과 부족점들을 발견하여 그를 시정하며 그 교훈을 장래 승리의 밑천으로 삼을 줄 아는 당의 볼쉐위크적 혁명성과 대담성의 정신이 담겨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전쟁 기간 특히 일시적 전략적 후퇴 시기에 우리 당내에서 발현된 일련의 결함들과 그 원인들을 구명하였으며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할 것과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들을 명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당 규률을 강화하는 것이 전쟁 승리를 위한 모든 전투적 과업 실천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중심 고리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 군대가 간고한 일시적 전략적 후퇴를 승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조직 지도한 당 중앙 위원회의 로선과 정책이 가장 정당하였고 현명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과업들을 전 당과 전 인민,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이 전원 회의는 전쟁에서 우리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이 적의 유생 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 소탕하며 반공격으로써 계속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며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가일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전환점으로 되였다. 특히 이 전원 회의는 당 규률을 강화하며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 단결을 가일층 공고히 하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되였다.

* *

제 3차 전원 회의에서는 당 규률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로서 토의되고 비판되였고 강조되였다.

이것은 당 규률이 당 건설에서,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일반적 의미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였다. 바로 이 문제는 당시 당 앞에 제기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 모든 전투적 과업 해결의 결정적 고리로서, 나아가서는 전쟁의 승패와 당의 장래 발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문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제기되였던가?

그것은 우리 혁명 수행에서, 특히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지닌 중대한 책임과 관련된 것이며 당시 우리 당의 형편, 전반적 국내 형편과 이로부터 제기되는 전투적 과업 수행의 요구에 의한 것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조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중하를 걸머지였다. 인민 대중은 벌써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의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서슴없이 우리 당에 의탁하게 되였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의 어려운 시련이 닥쳐 오자 인민들은 우리 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를 승리의 담보로, 용감성과 영웅성의 고무적 원천으로 바라 보았다.

이렇게 두터운 인민의 신임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 당의 책임은 전쟁 시기에 더욱 크고 무거운 것이였다: 전쟁 승리의 열쇠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조직자적, 령도자적 역할 여하에 달리게 되였으며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전선과 후방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키는 여하에 달리게 되였다.

당이 대중에 대한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함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 대렬의 불패의 통일, 당 단체의 조직성과 규률성,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다. 특히 계급 투쟁이 가장 복잡하고 첨예화한 전쟁 시기에 있어서 당 규률, 당 단체들의 조직성이 가지는 의의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어려운 전략적 후퇴를 겪은 우리 당의 경험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만일 우리 당내에 강철같은 규률이 수립되여 있지 못하였더라면, 현명한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령도되는 중앙 집권적인 유일한 규률에 의하여 전 당이 일치한 조직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더라면 전체 국가 기관, 전체 인민, 중요 생산 및 문화 시설들을 이전시키며 력량상으로 우세한 적의 포위로부터 인민군 주력 부대의 후퇴를 보장하는 그러한 위대하고 간고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어려운 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반공격으로 넘어 설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의 통일이 불패하였고 어떠한 곤난 속에서도 당 정책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전 당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전선이 일시적 전략적 후퇴로부터 반공격으로 넘어감과 관련하여 당 앞에는 더욱 긴급하고 중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과업들이 제기되게 되였다.

적들의 일시적 강점 기간 그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지방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조직들이 파괴되였었다. 우리 당은 북반부의 해방된 지역들에서 당, 정권 기관들과 대중 단체 조직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또 한편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 섬멸하며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하였다. 인민 군대의 무장을 일층 정비 강화하며 새 사단들을 급속히 편성 훈련하며 군대의 전투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군대의 혁명적 규률을 강화하고 그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강철의 군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였다.

인민 군대를 강화하며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후방을 철옹성같이 꾸려야 하였다. 그런데 일시적 강점 기간에 적들이 끼쳐 놓은 후과는 정치, 경제, 사상 분야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적들은 수 많은 우리 당원들과 애국적 인민을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강점하였던 모든 곳에서 인민의 가옥과 온갖 재산을 략탈 파괴하였으며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 시설 등 일체의 것을 파괴, 소각하였다. 그 결과 인민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령락되였다. 이러한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시키며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가능한 모든 시설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 생산을 보장하여야 하였다. 특히 전선과 후방에서 긴절히 요구되는 식량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당 앞에 제

기된 가장 중대한 과업이였다.

적들은 일시적 강점 기간에 악독한 제국주의 사상 독소를 전파시키며 야수적 학살과 위협과 공갈로써 인민 대중의 정치적 사기와 승리의 신심을 말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또 각종 반동 단체들을 조작하여 그에 인민 대중을 강제로 인입시킴으로써 대중을 우리 당의 주위로부터 떼여 내고 우리 당을 고립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또 그들은 북반부에서 패주하면서 수 많은 간첩들과 파괴 암해 분자들을 숨겨 놓았다.

적들의 이러한 만행은 부분적인 대중들 속에 여독을 남겨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극히 부분적인 사람들은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그 때에도 아직 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혹시 적이 다시 오지나 않을가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때에 해방된 지역들에서 적들이 강점 기간 끼쳐 놓은 정치 사상적 여독을 시급히 청산하며 반혁명을 철저히 진압하며 인민 대중의 정치적 사기와 승리의 신심을 제고시키며 우리 당과 인민 대중을 리탈시키려는 적들의 시도를 분쇄하고 전체 인민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는 것은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다.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해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명백하였다. 다만 문제의 고리는 우리 당 단체들이 전선과 후방의 모든 분야에서 당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그를 기동성 있게 철저히 관철시키는 여하에 달려 있었다.

간고한 후퇴를 겪었고, 전쟁이 계속 가렬하고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였고 그 우에 또 적들의 폭격과 포격이 우심한 조건하에서 인민 군대의 무장력을 증강하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전선과 후방을 공고히 하는 과업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였다. 이 과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되고 모든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최고도의 규률성, 조직성, 자각성, 헌신성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였다. 당이 이와 같이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는 경우라야만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투쟁이 《무모한 공격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으며 성공을 약속하는 공격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다》(전집, 제 5권 2분책, 316페지).

그런데 그 때 우리 당내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그 때에 당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과 그를 수행하여야 할 일부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사업 수준, 당내 형편간에는 일정한 불합치가 조성되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때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전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된 전투적 과업 수행을 저애하는 일련의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바 그것은 일시적 후퇴 시기에 더 조장되였으며 전면에 로출되게 되였다.

일부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전쟁은 난관도 많으며 또 진공할 때도 후퇴할 때도 있다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였으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 혁명적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함이 부족하였다. 일부 당 단체들은 가능한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후퇴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지도 못하였고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방어전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일'군들은 수량상 우세한 적의 진공에 당황하여 사업에서 엄중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시키기까지 하였다.

후퇴 시기에 일부 당원들 속에서 발로된 가장 엄중한 경향은 자유주의적, 비조직적 현상이였다. 일찌기 레닌은 퇴각시에는 보통 때보다 몇 백배나 더 강한 규률이 요구되며 그 규률은 더욱 자각적인 것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은 후퇴 시기에 당 규률을 지키지 않고 당이 준 전투적 임무를 망각하고 비조직적,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자들 중 일부 분자들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여 비관, 실망 기분에 빠지며 지어는 동요하는 현상까지 발로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적 및 경제적 제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 당내에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요소들이 잠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특히 컸던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전쟁전 평화롭고 순탄한 환경 속에서 급속히 대중적 정당으로 장성되였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이 모두다 이미 전쟁전 시기에 혁명 투사로 단련 육성되지는 못하였으며 당내에는 일부 우연 분자도 숨어 있을 수 있게 되였다. 당내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함들은 이러한 요소들의 발현과 관련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이번 전쟁을 통하여 누가 우리 당의 진정한 당원이며 누가 가짜 당원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 평화롭고 순편한 조건하에서 급속하게 장성한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 전부가 진정한 근로 인민의 전위 당의 당원이 될 수는 없다. 전쟁은 불순, 비겁, 이색 분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로 적발하였다》

(선집, 제 3권, 169페지).

당과 인민이 가장 위험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내에 잠입하여 있은 반당 종파 분자들은 제각기 반당적 목적을 가지고 당 규률을 파괴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은 적에게 군사 비밀을 넘겨주며 당 대렬내에서 파괴 행동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추악한 반혁명 목적의 실현을 망상하였다.

그 때 허 가이는 개인의 향락과 부화 방탕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을 국 내외에 선전하며 인민들을 전쟁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무장시킬 데 대한 당의 위임 실행을 태공하였다. 이 외에도 박 일우, 최 창익, 박 창옥 등 기타 일련의 종파 분자들은 당이 어려운 곤난에 처하게 된 것을 은근히 기뻐하면서 자기의 추종 분자들을 규합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 모든 종파 분자들은 례외 없이 우경 투항주의적, 자유주의적 사상 독소를 류포시키면서 자기들은 당 규률의 통제 밖에 있는 《특출한 당원》인 듯이 《행세》하면서 당내에 두 개의 규률을 조성하려 하였다. 바로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이 그 때 일부 당 단체들에서 발로된 바와 같은 비조직성, 무규률성, 자유주의적 경향을 조장시킨 중요한 근원이였다.

이와 같이 일부 종파 분자들과 불건실한 자유주의 분자들에 의하여 초래되였고 조장되고 있은 비조직성, 무규률성, 자유주의적 경향은 비록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은 큰 것이였다.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내에서의 규률의 약화는 곧 인민 군대와 정권 기관 기타 모든 지도적 기관들에서의 규률의 약화와 비조직성의 초래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만일 강대한 적과 직접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군대내에 혁명적 규률이 견지되지 못하고 약화된다면 그 군대는 백전 백패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 그 때에 일부 당 단체들에서 발로된 무규률적 현상을 그대로 방임하였다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였다.

당내에 두 개의 규률과 비조직성, 무규률성을 조장시키는 종파 분자들과 자유주의 분자들의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더 엄중한 위험성은 그것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전쟁이 가장 곤난한 시기일수록 《가장 사소한 규률 파괴라도 엄격히, 준엄히 무자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저작 선집, 2권 3분책, 257페지)고 강조하였다. 만일 이러한 것을 묵과하거나 그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큰 오유로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후에 반드시 고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레닌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123페지, 1957년,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라고 경고하였다. 레닌의 이 교시는 제 3차 전원 회의 당시의 우리 나라와 당내 형편에서 가장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그 때에 우선 당 규률을 강화함이 없이는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릴 수 없었으며 모든 당 단체들과 당원들 속에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관철하는 그러한 규률성과 혁명적 기풍이 확립됨이 없이는 전선과 후방의 강화를 위하여 제기된 기타의 모든 전투적 과업의 실행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 때에 당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는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인민 군대와 정권 기관을 강화하며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전선과 후방을 결정적으로 공고히 하는 기본 중심 고리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가 소집되던 당시의 당내 정형은 이상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한 까닭에 회의에서는 당 규률 강화 문제가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그에 대한 혁명적 대책이 취해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포악한 원쑤들을 격멸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는 우리 당이 어느 때보다도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자기의 대렬을 강철같이 더 결속하는 것이다… 당의 명령에 대하여는 비록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 들어가 제때에 정확하게 실천하는 강력한 작풍이 전 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선집, 3권, 166페지).

*　*

당의 혁명적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당 발전과 혁명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위한 성숙된 당면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전원 회의에 뒤이어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하에 그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이 전 당적으로 전개되였다.

당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이 투쟁은 규률 위반자들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였다. 이것은 전 당적 심각한 사상 투쟁이였으며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당의

력사가 청소하고 따라서 적지 않은 당원들의 당 생활 경험이 어리며 그들이 당의 혁명적 규률의 본질과 그의 의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서 당 규률 강화를 위한 투쟁을 당원들의 사상 교양 사업, 당원들에게 당의 혁명적 규률의 본질과 그의 의의, 규률 위반이 당과 혁명에 끼치게 되는 엄중한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적 방법이 규률 위반 현상과의 사소한 타협이나 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였다.

당은 우선 당내에 자유주의, 무규률성 등 불건실한 사상적 독소를 류포시키는 일부 반당 종파 분자들과 자유주의적 분자들과 기타 규률 위반 현상과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자기 본래의 혁명적 정신과 조직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종파 분자들과 가장 엄중한 당 규률 파괴자들에게 대하여는 그의 직위와 《공로》 여하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아직 당 생활 경험이 어린 데로부터 사소한 과오를 범한 당원들은 그의 잘못을 해석하고 교양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일부 종파 분자들과 엄중한 규률 파괴자들에 대하여 취하여진 혁명적 조치는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을 강화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바로 그러한 분자들이 당내에 두 개의 규률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당의 배후에서 당 정책을 은근히 비방하며 전시 당 정책의 기동성 있는 관철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당원 대중 속에서 진행된 교양 사업과 종파 분자, 엄중한 규률 위반자들에 대하여 취하여진 당의 혁명적 조치는 일부 불견실한 당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였으며 전체 당원들이 당 규률의 혁명적 본질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 때에 일부 종파 분자들은 규률 위반자들에 대하여 당이 취한 조치를 반대하여 나섰다. 박 일우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하는가?》,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당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당적 원칙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는 종파적 비방이며 반맑스—레닌주의적 목소리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은 혁명을 위한 무기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혁명의 리익을 제 1차적으로 존중히 하는 까닭에 혁명에 공로가 있는 당원들을 가장 존경하고 소중히 한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가 자기의 과거의 약간한 《공로》를 밑천으로 내세우면서 현재의 혁명 리익을 침해할 때 그와 당이 타협할 수 있겠는가? 혁명을 위하는 당이 이러한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은 레닌이 몇 번이고 강조한 바이다.

종파 분자들은 당에서 처벌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호》하는척 함으로써 그들이 당을 반대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들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당은 이러한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시도를 분쇄했을 뿐만 아니라 음페된 종파 분자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다른 한편 각급 당 단체들에서는 당 조직을 정비하며 후퇴 시기에 일부 분산되였던 당원들을 재등록하며 당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당은 이 행정을 통하여 당원들을 다시 검열 료해하며 당 교양 사업을 개선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전쟁 행정은 일부 우리 당 단체들에서 진행된 당 교양 사업에 적지 않은 형식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즉 당 정치 교양 사업이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난관을 극복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킴이 부족하였다. 특히 당원들에게 그의 영예로운 임무와 당 생활 규범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를 준수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이 부족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것이 후퇴 시기에 부분적이지만 엄중한 결함을 산생케 한 주요 원인의 하나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사상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당원들 중에는 우리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전선이 남으로 전진하게 됨에 따라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일성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그 때 이러한 경향을 엄격히 비판하고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문제는 자신의 손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주인은 우리 조선 인민이다. 주인이 더 많이 로력해야 하겠다. 우리 인민의 조직자이며 고무자는 우리 로동당이다. 로동당원이 근로 인민의 핵심이며 주동적 선봉이며 창발자이다…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과거의 옳지 못한 습성과 경향들을 청산하고 적극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야 하겠다》(동상서' 172페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에 근거하여 당 교양 사업에서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난관을 극복하고 당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줄 아는 헌신성과 긴장성과 창발성으로 무장시키는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또 이와 함께 당 단체들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발로되는 결함과 타협하지 않고 그를 극복하며 당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비판과 자기 비판이 활발히 조직 전개되였다. 당 규률을 강화함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하였다.

당 대렬을 강화하는 문제도, 당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도 실제에 있어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 문제와 깊이 관련되여 있다. 당 단체들에서 일상적으로 생기 있고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이 활발히 전개됨이 없이는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와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발생되는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할 수 없으며 당 정책을 기동성 있게 철저히 관철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상급으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간부들로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비판과 자기 비판에 충실》(동상서, 169페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종파주의, 자유주의, 무규률적 경향이 조직적으로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되고 당 단체들이 새로 정비되고 당 교양 사업과 비판과 자기 비판이 강화됨으로써 전체 당원들의 자각성, 당성이 제고되였고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 당의 통일과 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전투적인 지시와 결정이 전선 부대와 후방의 인민들 속에서 기동성 있게 관철될 수 있게 한 기본 전제 조건이였다. 당 정책에 불성실한 모든 경향은 당원들에 의하여 제때에 비판 폭로되며 당의 중앙 집권적 규률이 강화되였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 당 단체와 당원들의 창발성이 제고되였다.

전 당이 이와 같이 전투적 부대로 꾸림으로써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사업은 성과적으로 보장되여 갔다. 즉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와 당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들에서 단시일 내에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교육 문화 기관들이 복구되여 제 궤도에서 전시 과업을 수행하게 되였다.

당 규률의 강화는 당과 전체 인민 대중들과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였으며 군대내에서 혁명적 규률과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은 당의 정책,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관철하는 무비의 충실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당은 특히 인민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대내에 당 단체를 설치 강화하며 그에 우수한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군대내에서 군사 단일제를 강화하며 각급 지휘부의 지휘 기능을 제고하며 군사 규률을 일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되였다. 인민 군대의 규률과 전투력이 제고된 결과에 적들이 그렇게 떠들던 1951년 하기 및 추기 공세를 분쇄하였으며 제 3, 제 4차 등 전역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계속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군대내에서 창발성도 일층 제고되였다.

후방 인민들은 전시 생산을 보장하며 전선을 원호하는 어려운 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게 되였다. 영웅적 로동 계급은 적들의 폭격이 끊임 없이 감행되는 조건하에서도 파괴된 공장, 기업소를 복구하여 1951년도 산업 부문 계획을 109.6%로 초과 완수하였다.

철도 운수 부문 로동자들은 적들의 맹폭격과 어두운 밤을 가리지 않고 전선 수송을 보장하였다.

농민들도 원쑤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 그들의 파괴 략탈로 인하여 축력, 종자, 농기구 등이 부족되고 중첩되는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 《파종은 전선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1951년도 춘기 파종을 례년보다 10—15일 간 단축하여 완수하였으며 60년래 대홍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면서 농산 계획을 완수하였다.

당 단체들이 강화되고 인민 대중의 정치적 열성이 제고된 결과 반혁명파의 투쟁을 강화하며 악질 분자들을 제압하며 적에게 강제로 유인 기만 당하였던 자들을 개조하며 우리 당과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도 정확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후퇴로부터 적에 대한 반공격으로 넘어선 첫 시기에 군사, 정치, 경제,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은 것은 오직 그 모든 분야에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전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이 강화됨으로써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제 3차 전원 회의 정신이 가장 정당하였다는 증명으로 되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그것이 논 거대한 역할과 의의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제 3차 전원 회의가 당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혁명적 대책을 취함으로써 당 단체들과 전 당을 철옹성같이 꾸릴 수 있게 되였으며 그 때에 당 앞에 제기된 모든 전투적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였으며 나아가서는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리 당 대렬을 100 여 만의 대오로 장성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과 그 정신은 우리 당의 발전과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항상 당 중앙 위원회가 얼마나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의 하나로 된다. 동시에 당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전원 회의 정신은 오늘에 있어서도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서적 해제 및 평론

《맑스, 엥겔스 회상기》에 대하여

김 창 원

《맑스, 엥겔스 회상기》는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이며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천재적 수령이며 스승인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친우와 전우들, 국제 로동 운동의 활동가들, 맑스의 가족, 그리고 맑스, 엥겔스와 만나서 담화하였으며 또 그들에게서 배운 인사들에 의하여 집필된 회상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매개 회상기들은 맑스와 엥겔스의 생활과 사회 정치적 활동 및 고귀한 품성들에 대하여 생생하고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본 회상문집은 서문으로서 엥겔스의 론문 《칼 맑스》, 레닌의 론문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쓰딸린의 《제 1차 미국 로동자 대표단과의 담화》의 일부를 게재하고 있는바 우리는 여기에서 맑스, 엥겔스의 생애와 활동, 그들에 의하여 창시된 맑스주의 학설의 본질, 레닌에 의한 맑스주의 학설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본 회상문집 제 1편에는 맑스와 엥겔스의 제자들과 전우들의 회상기들, 제 2편에는 맑스의 일가—맑스의 부인 엔니, 막내딸 엘레오노라 그리고 외손자 에드가르 롱게의 회상기들, 제 3편에는 대부분이 맑스와 엥겔스와는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회상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회상기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살고 투쟁하던 당시의 사회 력사적 환경, 맑스와 엥겔스의 전기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들과 그들의 풍모를 특징 짓는 점들을 생동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개별적 회상기로서 맑스와 엥겔스의 활동의 전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상세히 특징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회상기들을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및 그들의 왕복 서한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함으로써만 그들의 생애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창시된 맑스주의 학설의 전 세계사적 의의를 과학적으로 리해할 수 있다. 또한 회상기들을 그렇게 고찰함으로써 맑스와 엥겔스의 모든 위대한 면들과 아름다운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다.

회상기의 필자들은 무엇보다도 맑스와 엥겔스를 위대한 혁명가로,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불굴의 투사로, 국제 로동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엥겔스에 대한 회상기에서 맑스의 딸 엘레오노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전기를 쓰기 위하여서는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생애와 창작은 아주 밀접히 련결되여 있어서 그들을 갈라 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공상으로부터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사 뿐만 아니라 또한 거의 반세기에 걸친 장기간에 있어서의 전체 로동 운동의 력사를 써야만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 사람은 결코 한낱 사상적 령도자,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유리된 한낱 리론가나 철학가에 그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투사였고 한편 투쟁에 있어서는 변함 없이 제 1선에 서 있었다. 즉 그들은 혁명의 전사인 동시에 그 총 참모부의 지도자였던 것이다》 (《맑스, 엥겔스 회상기》,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37—238페지).

회상기들은 또한 맑스와 엥겔스의 심오한 당성, 로동 계급의 적들에 대한 사상적 비타협성과 원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엘레오노라는 엥겔스에 대한 자기의 회상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엥겔스는 세계에서 가장 언행이 정확한 사람으로 그의 의무감과 특히 당적 규률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는 위선적인 것과는 무한히 거리가 멀다》 (동상서, 245—246페지).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이 창시한 혁명적 리론을 선전 보급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로동 운동내의 각종 소부르죠아적 공상적 사회주의 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는바 회상기들은 지난 세기 40년대에 와이틀링과 프루동주의자들, 《진정 사회주의자들》, 제 1 인터나쇼날 시기의 프루동주의, 랏살주의, 맛지니주의자들, 영국 로동 조합들의 기회주의적 지도자들 및 무정부주의적 바꾸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비타협적 투쟁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 불란서, 벨기, 영국 등 어디에서든지 항상 프로레타리아 혁명 간부들을 교양하며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로동자 당의 형성을 방조하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각국 사회주의자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로동자 협회에서 광범한 대중들에게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정치 경제학, 철학 및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을 해설하는 보고와 강의를 하였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간부의 교양,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교양에 주의를 돌렸다. 이에 대하여 폴 라파르그는 맑스가 그에게 《나는 내가 죽은 후에 공산주의 선전을 계속할 사람들을 육성하여야 하겠다》(동상서, 76페지)고 말하였다고 쓰고 있다. 엘레오노라는 이러한 특징이 엥겔스에게도 고유하였다고 쓰고 있다.《청년들에 대한 그의 한량 없이 선량한 배려에 관하여서는 내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어느 나라에 가든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엥겔스가 그 누구든지 청년들에게 우의적인 봉사를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사업을 옆으로 밀어 놓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그 사실이다. 참말이지 그가 어떤 젊은 동무들에게 방조를 주기 위하여 자기 사업을 뒤로 미루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였다》 (동상서, 245페지).

맑스와 엥겔스는 혁명가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계획적이였고 요구성이 강하였다. 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배우고 또 배우라!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재삼 재사 되풀이한 무조건적 교시였다》고 쓰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친근한 전우이며 제자인 재봉 로동자 프리드리히 렛스네르는 직업적 혁명가,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열렬한 선전자를 교양함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가 논 거대한 역할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다만 로동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웠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로동자들과의 회합 및 담화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여기에 있어 그는 자기에게 진지한 태도로 대하며 아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였다. 그는 운동에 대한 로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과 같이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제들을 토의할 용의가 있었으며 여기에 있어 그는 로동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료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내 알아채군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이 문제를 더 잘 료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더 기뻐하는 것이였다》 (동상서, 209페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자체에 구현하고 있은 맑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을 세계의 공민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나라의 혁명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모든 나라의 진보적 출판물에 충실히 협력하였다. 엥겔스는 《챠티스트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챠티스트 신문 <북극성>과 로버트 오웬의 신문 <신도덕 세계>의 고정적인 협력자였다》 (동상서, 239페지). 맑스와 엥겔스는 영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아일랜드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였다.

회상기의 필자들은 《공산주의자 동맹》에서의 맑스와 엥겔스의 활동, 제 1 인터나쇼날에 있어서의 로동자 당의 통일 단결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쓰고 있다. 헤그에서 소집된 제 1 인터나쇼날 제 5차 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였던 테오도르 쿠노는 제 1 인터나쇼날 내에 있어서의 바꾸닌의 해당적(解黨的) 활동을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 및 그의 전우들의 비타협적 투쟁을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회상기의 저자들은 맑스와 엥겔스를 놀랄만하게 폭이 넓고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비상한 사업 능력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성실성 등으로 특출한 위대한 학자로 묘사하고 있다. 《과학은 결코 리기적인 쾌락은 아니다——하고 맑스는 말하였다——따라서 자신을 과학 사업에 바칠 수 있는 행복자들은 솔선해서 자기의 지식을 인류에 복무시켜야 한다》(동상서, 76페지). 과학을 인류에게 철저히 복무시킨 맑스와 엥겔스의 과학 활동은 프로레타리아 당성과 과학성의 유기적 통일의 산 모범이다. 자기의 저명한 로작들 특히 불후의 대작 《자본론》을 저술함에 있어서 맑스는 공상적인 안개 속에서 방황하던 사회주의 운동에다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려는 명확한 의도와 자기의 연구 결과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썼던 것이다. 정당하게도 1868년 9월 제 1 인터나쇼날 브륏셀 대회는 각국 사회주의자들에게 《자본론》을 《로동 계급의 성서》로 권고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 후 《자본론》은 각국 프로레타리아 혁명 간부들의 교과서로서 훌륭하게 복무하였으며 또 복무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또는 각종 소부르죠아적 영향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속

에서 자기들의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였다. 소부르죠아적 사상가들은 자기의 영향을 보존하려고 시도하면서 맑스와 엥겔스를 반대하여 가장 비렬한 독설을 퍼부었으나 맑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공격을 자신성 있게 물리쳤다.

회상기의 저자들은 맑스와 엥겔스를 비상한 천재, 비상한 정력, 비상한 로동 능력 및 과학적 성실성이 결합된 심오하고 비상한 사상가로서 묘사하고 있다. 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맑스에 대한 회상중에서 비범한 천재인 맑스가 아주 근면한 사람이였으며 언제나 긴장하여 인내성 있게 일하며 언제나 최대한의 철저성을 가지고 일하는 대단한 노력가란 것을 감명깊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론》에서 영국 로동법에 관한 것을 20페지 가량 쓰기 위해서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조사 위원회들과 감독관들의 보고가 들어 있는 전체 관공 문헌들을 첫 머리에서 끝까지 정독한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 학설을 그 어떤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회상기들에서는 맑스와 엥겔스가 비단 자기들의 론문들과 서한들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 사회주의자들과의 개인적 회견시에도 자기 학설의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쎅트주의, 교조주의, 독단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맑스는 이미 청년 시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그 어떤 교조주의적 기'발을 세우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 기성된 새 원칙을 가진 교조주의자로서 세상에 나타나려 하지 않는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선행자들과 동 시대인들의 과학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섭취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라파르그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맑스는… 만일 학자가 스스로 자기 수준을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사회 생활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되며 치즈 덩어리에 달려 붙은 쥐 모양으로 자기 서재나 자기 실험실에 영원히 들어 박혀서 실생활과 동 시대인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투쟁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간주하였다》(동상서, 76페지)고 쓰고 있다.

회상기들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정치 경제학, 력사 철학, 세계 각국의 문학에 대하여 해박하고 심오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은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는 하이네와 괴테의 시를 암송하고 있었고 에스큘로스와 쉑스피어를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두 천재적 극작가로서 사랑하였다. 시인으로서는 단테와 스코틀랜드의 풍자 시인 번즈를 사랑하였다. 작가들 중에서도 발자크, 세르반테스, 필딩을 높이 내세우고 있었다. 맑스는 바하, 헨델, 와그나의 음악을 좋아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풍부한 언어학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맑스는 구라파의 모든 언어를 읽을 줄 알았으며 독일어,불란서어,영어로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맑스는 《외국어는 생활을 위한 투쟁의 무기》라고 보았다. 맑스는 50세가 지나서 로어 공부에 착수하여 뿌쉬낀, 레르몬또브, 고골리, 쒜드린, 뚜르게네브의 작품들을 자유로 읽을 수 있게 로어를 소유하였다.

엘레오노라는 엥겔스가 놀랄만치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하고 전체 포괄적인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박물학, 화학, 식물학, 물리학, 언어학, 정치 경제학 그리고 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돌렸고 20개 어로 말하였다. 1870년 보불 전쟁시에 《뽈말 신문》에 게재된 엥겔스의 군사 문제에 관한 론문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엥겔스는 맑스의 맏딸 엔니로부터 《장군》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엘레오노라는 자기 회상기에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별명은 훨씬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엥겔스는 사실 우리 프로레타리아 군대의 장군인 것이다》(동상서, 246페지)라고 부언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주위 현실을 가장 심오하게 리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진리성을 확신케 할 수 있게 하였다. 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공산주의 로동자 계몽 협회 회의실에서의 맑스의 정치 경제학 강의가 질서 정연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강의술에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 폴 라파르그는 맑스가 인류 사회 발전에 대한 자기의 천재적 론술을 들려 준 그날 밤에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마치 나의 눈을 가리우고 있던 장막이 쪽 갈라져 나간 듯한 느낌이였다. 생전 처음으로 나는 세계사의 론리를 명확히 깨달았고 일견 그처럼 모순된 사회 및 사상 발전의 제 현상을 그것들의 일반적인 물질적 원인에 귀착시킬 수 있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이에 현혹되였다. 그리하여 그 인상은 다년간 내 머리 속에 남아 있었다》(동상서, 82—83페지).

회상기의 저자들은 맑스와 엥겔스를 다만 천재적인 사상가, 위대한 혁명가로서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인간의 품성들인 수정같이 맑은 도덕적

순결성, 겸손, 소박과 성실, 강철같은 인내성, 력사발전의 객관적 제 법칙에 대한 심오한 인식과 인류력사에 있어서의 새 기원인 공산주의 시대의 불가피적 도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토대로 한 건드릴 수 없는 락천주의 등을 자체에 구현한 사람들로서 묘사하고 있다. 맑스가 좋아하는 격언은 《인간적인 것 치고 나에게 무관계한 것은 없다》(동상서, 359페지)는 것이였다.

맑스와 엥겔스에게는 허영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맑스는 인기(人氣)란 것을 증오하였으며 말공부쟁이들에 대하여서는 혐오감을 금할 수 없었다. 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맑스가 무능하고 저렬한 자들이 과시하는 허세와 거짓 명성에 대하여 극도로 증오하였으며 평생 허식을 일삼은 일이 없으며 어린애들 모양으로 가면을 쓸 줄 몰랐으며 언제나 있는 그대로였다고 쓰고 있다. 회상기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명랑하고 생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리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맑스를 리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그의 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반롱담적인 대답인 《고백》이다.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맑스는 《소박》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맑스는 행복이란 투쟁이라고 인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다. 프리드리히 렛스네르는 《과학 사업이나 로동 운동의 리익에 관계될 때면 맑스는 언제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다》(동상서, 219페지)고 쓰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맑스를 리해함에 있어서 또한 맑스의 손자 에드가르 롱게의 회상기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란서 로동 운동의 적극적 활동가였던 그는 왕복 서한들과 가정 문고에 근거하여 가정에 있어서의 맑스 자녀와 손자들에 대한 그의 애정, 위대한 자기 조부의 생애와 활동의 제 환경을 그리고 있다.

회상기에는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우정과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나 혁명 투쟁에 있어서나 변함 없었던 그들의 동지적 협조 관계가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맑스의 생존시에 엥겔스는 자기 벗에게 백방의 방조를 주었으며 맑스의 믿음직한 조언자인 동시에 또 가장 엄격한 비판자였다. 《그들의 사상이나 로작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비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 교환처럼 그렇게 심중한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그처럼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동상서, 103페지)라고 폴 라파르그는 자기의 회상기에 쓰고 있다. 맑스는 자기의 벗을 자랑하였고 엥겔스는 위대한 겸손성을 가지고 맑스의 생활에서 자기는 제 2 바이올린수의 역할을 놀았다고 말하였다. 맑스의 서거후 엥겔스는 그의 친우가 탈고하지 못한 저서를 완성하여 출판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고 《자본론》 제 2권(1885년)과 제 3권(1894년)을 출판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우정에 대하여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실례를 이야기하여 준다. 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들의 과학은 학자이며 투사인 두 사람이 창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교의(交誼)는 인간의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모든 옛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동상서, 61페지).

회상기의 저자들은 가족과 동무들 속에서의 맑스와 그의 처 엔니 폰 웨스트팔렌, 딸들인 엔니, 라우라, 엘레오노라 그리고 맑스의 가족의 충실한 벗이며 방조자인 헬레네 데무트의 선명한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맑스는 정답고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동무, 놀음의 참가자, 가장 훌륭한 이야기'군이였다. 회상기의 저자들은 맑스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였으며 그들과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는가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맑스의 부인—엔니 맑스는 맑스의 일생을 통하여 참답고 진정한 그의 벗이였다. 그는 절박한 궁핍의 시기, 가혹한 혐의, 추악한 비방, 랭정한 무관심의 제 시기에도 맑스의 위업에 대한 굳은 신념과 생의 기쁨을 가지고 인내성 있게 극복해 나갔으며 생명의 마지막까지 맑스를 위하여 성실하였다. 그는 예리한 비판적 두뇌, 정치적 재치, 자기 남편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동자들을 항상 친절히 환대하였고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매개 성과를 기뻐하였다. 그는 또한 맑스의 충실한 비서로서 출판에 회부하기 위한 원고를 정서하였으며 그의 의견에 대하여 맑스는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엔니 맑스의 자서전적 형식의 수기들과 우인들에게 보낸 그의 서한들에는 맑스의 가정 생활과 그가 생활하고 일하던 간고한 생활 형편들과 그리고 대내외의 적들과의 투쟁을 특징 짓는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여 있다. 엔니는 맑스의 정치적 원쑤——윌리히, 포크트, 랏살 및 기타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 랏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랏살주의 학설〉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20년 동안에 걸쳐 칼(맑스를 가리킴—편집자 주)이 완성한 학설을 비량심적으로 표절한 것에다 순전히 반

동적 성격을 띤 자기 자신의 약간의 조미료를 넣은 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였는데 그것에서는 진리와 허구의 아주 진기한 혼합물이 생겨 나왔었다»(동상서, 311페지).

맑스의 세 딸들도 모두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사활적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로씨야 필자들의 회상기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로씨야에 대해서, 로씨야 인민과 그의 언어,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짜리의 전제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씨야 혁명가 게. 아. 로빠찐은 맑스와 엥겔스가 로씨야 인민의 창조적 력량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가 세계 력사에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지금 만사는 가까운 장래에 빼쩨르부르그에서 무엇이 수행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으니 오늘날 전 구라파의 모든 선견지명 있고 통찰력 있는 사색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로 집중되여 있다» (동상서, 271페지).

로씨야의 사회 민주주의 소조들에 참가했던 아. 엠. 워젠은 자기가 1893년에 진행하였던 엥겔스와의 담화를 서술하면서 엥겔스가 바로 로씨야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력적인 수령들이 멀지 않아 출현할 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으며 그리고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몹시 강조하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엥겔스는 로씨야 사람들이——비단 로씨야 사람들 뿐만 아니지만——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중에서 인용구를 선택하지 말고 자기 실정에 알맞게 맑스가 생각한 것처럼 문제를 사고할 것을 원하며, 그러한 의미에서만 <맑스주의자>라는 단어는 <존재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상서, 450페지). 그런데 엥겔스를 만나 보지 못한 웨. 이. 레닌이 바로 그 시기에 자기의 혁명적 활동을 개시하였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혁명적 학설을 로씨야의 구체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과 새 시대—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의 제 조건에 적용함으로써 이미 자기 활동의 첫 걸음에서부터 그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맑스, 엥겔스 회상기»의 출판은, 당의 부름에 따라 사회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로 달리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들은 회상기를 통하여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수령이며 스승인 맑스와 엥겔스의 생활, 활동 및 품성으로부터 한없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배우면서 맑스와 엥겔스처럼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지혜, 혁명적 정열을 바칠 것을 굳게 결의하게 된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업은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맑스의 위업에 대하여서는 청동쇠나 대리석의 우아한 기념비가 이를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고 한 맑스의 영원불멸의 전투적 구호를 따르는 전 세계 각국의 무수한 로동자 대렬이 이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동상서, 260—261페지). 로동 계급이 있는 곳에서는 맑스와 엥겔스의 이름이 울리고 있으며 그들의 위대한 사상은 더욱 더 많은 근로자들의 심장 속에 깊이 스며 들고 있다. 오늘 인류의 3분의 1이 맑스—레닌주의 기치하에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있다.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자기의 전 생애를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바친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형상을 생동하게 보여 주는 회상기의 구절구절은 우리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여 주고 있다.

공업 기술 도서 출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윤　　묵

전반적 출판물들의 질을 제고하며 출판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치의 하나로서 1956—1957년 간에 발행된 도서, 잡지들에 대한 총화 사업이 있은 그 때로부터 반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성과와 개진이 있었다. 즉 공업 기술 도서들이 종전에 비하여 량적으로 장성되였으며 그의 사상 정치적 및 과학 기술적 내용도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공업, 운수, 건설, 체신 등 부문의 사업에 효과적인 방조를 주고 있는 일련의 우수한 도서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였다.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된 «희유 금속 화학»(최삼렬 저)과 공업 기술 서적 출판사에서 발행된 «스프 방직»(김 관수, 최 제식, 김 치균 편저)을 비롯한 기타 일련의 저서들과 «광업 편람»(정 길하, 최 명식 역) 등 일련의 번역 기술 도서들은 광범한 생산 실천자들과 해당 전문 부문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공업 기술 도서 출판 사업은 이상과 같은 성과에 결코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공업 기술 도서들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에 해당한 전문 기술 도서들의 대량적 또는 다종다양한 발행을 긴절하게 제기하고 있다. 광범한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각종 기대, 기계들의 구조, 성능, 운용 방법들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서술한 기술 도서들을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일'군들은 세분화된 기술 공정에 침투하여 기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 도서들과 참고 서적들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 기술 도서 출판 사업은 이 모든 절실한 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기술적 개건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적 문헌들, 새로운 기술적 장비와 혁신 운동에 시기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기술 도서들이 량적으로 적게 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 기술적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통속 기술 도서들은 더욱 부족하다. 그리하여 해당한 기술 도서들을 제때에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비근한 실례로 «베아링»을 만들고 있는 로동자들은 생산 공정에 대한 기계화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아무러한 참고 서적과 기술 문헌의 방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속, 화학 기타 여러 생산 직장들에서는 해당 부문에 관계되는 초보적 기술 서적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적지 않은 저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업 기술 도서 출판 사업이 현실의 비약적 발전에 비하여 뒤떨어졌으며 아직도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적지 않은 경우에 지난날의 본질적 결함들을 반복하고 있는 데 있으며 당적 원칙성에 기초한 창조적 사업이 부족한 데 있다.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에서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중공업과 경공업 및 건설, 운수, 체신 기타 각 부문의 생산 실천에서 당 정책의 관철을 저애하며 현실 발전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발간된 공업 기술 도서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구체적 표현은 우선 당 정책과 현실적 요구에 모순되는 현상들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일례로 «배전반공»과 «반송공»(로동 기술 도서 출판사 발행)에서는 오늘 체신 부문에서 전주를 콩크리트로 전환시킬 데 대한 당적 요구와는 달리 목

재 전주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서술하고 콩크리트 전주에 대해서는 그 원가가 목재 전주보다 훨씬 비싸게 먹으며 운반하기 곤난하다는 등 부당한 리유를 들어 광범히 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송공》에서는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 적용할 데 대한 당적 요구로부터 유리되여 무의미한 서술과 뒤떨어진 기술 선전을 하였는바 례하면 《전주 지주 및 지선의 구덩이 파기에서 구덩이는 굴착기를 리용하여 팔 수도 있고 손으로 팔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만 손으로 파는 경우만을 설명하고 기계화할 데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수행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당적 출판물인 기술 도서들의 내용에서 고상한 당적 원칙성이 관철되여야 함은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중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공업 기술 출판물들에서는 당성이 결여된 기술본위주의적 경향이 발로되였는바 일례로 박 찬희 저 《볼트 지주》(공업 기술 서적 출판사 발행)라는 소책자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도 않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술적 성과를 보여 주는 자료들을 무분별하게 인용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기술적으로 우월한 듯이 선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우기 이 책자의 내용에서는 실지로 도입하여야 할 새 기술의 알맹이 즉 볼트 지주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업 기술 출판물들에서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가장 선진적인 과학 기술적 내용으로 혁신 운동에 도움을 줄 대신에 낡은 것을 고집하며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락후한 기술을 설교하는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교통성 출판사 발행 《항해사들을 위한 기술 문답집》(교통성 해사국 편)은 일제 시기의 낡은 서적들을 이기(移記)함으로써 그 기술적 내용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문장과 어휘 사용에서도 일제 시대의 낡은 수'법이 그대로 도입되고 있다. 더우기 이 책에서는 실지 항해사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바람에 대하여 설명하시요》, 《비가 내리는 리유를 설명하시요》 등등 부차적인 문제들을 설정하고 극히 조잡한 해답을 라렬하였는바 그것도 어려운 말로 힘들게 서술하여 오히려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는 낡은 《기술》의 신비주의가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례하면 《눈이 내리는 리유를 설명하시요》라는 질문의 해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빙점(氷點) 이하의 온도에서 습기는 즉 설편(雪片) 또는 빙침(氷針)을 형성하는바 비교적 따뜻한 상층 하늘에서는 설편을 이루고 혹한시에는 빙침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한대 지방의 눈은 극히 잔 소금과 같고 온난한 지방의 눈은 부드러운 면화와 같이 된다》(동상서, 141페지).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눈이 내리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유식》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눈이 내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아무러한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적 기술 도서들이, 천리마로 달리는 장엄한 현실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허무맹랑한 《기술》의 신비성에 매달리고 있는 실례로서는 최근 건설 출판사에서 발행된 《토피식 및 토벽식 건물의 시공 방법》(박 병건 저)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9장 34절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 어려운 수식과 기술적 명제들이 수다하게 포함되고 있는 《학술적 로작》으로 되고 있으나 그 기본 내용은 단순하게 진흙을 파서 그것을 이겨서 토피를 만드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토피를 만드는 《기술》은 구태여 이 책을 보지 않고서도 어린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기지의 사실을 이렇게 장황하고 까다롭게 서술하고 있는가!?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전문 기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할 현실적 요구는 특히 공업 기술 부문 출판물들에서 대중성과 인민성을 제고하여 광범한 로동자 대중이 읽고 리해할 수 있는 통속적 기술 서적의 비중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문 도서 출판 사업에서는 마치도 기술 도서는 어려운 말로 써야 하며 보통 사람들이 쉽게 리해할 수 없다는 신비주의가 작용함으로써 독자 대중의 접근을 방해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을 계속 발로시키고 있다.

더우기 이 부문 출판물들에서는 졸렬한 번역과 무책임한 서술이 허용됨으로써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내용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술 도서들의 내용에서 과학성과 기술적 정확성이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기술 도서들의 내용에서는 아직도 과학성이 결여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자와 국부적 용어상의 차이는 물론 본질적인 내용에서 해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중한 현상들이 종종 발로되고 있다.

일례로 로동 기술 도서 출판사 발행 《주물 생산의 기본》이라는 책은 정오표가 떨어진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사에서 많은 오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러한 검토 없이 그대로 출판함으로써 허다한 기술적 오유를 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삽화가 거꾸로 들어 가거나 도표가 제자리에 들어 가지 못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이 천리마로 달리는 장엄한 현실 발전에 따라 가지 못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얽매여 있는 또 하나의 편향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결부된 국내 저작이 극히 적은 반면에 외국 출판물의 기계적 번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공업 기술 도서 출판사에서는 지난 상반년 간 발행한 도서 총 39건 중 국내 저작은 작년도 조월분 한 책이 있을 뿐이고 2.4분기에 들어 와서는 기술 지도서 한 건을 국내 편작으로 한 다음에는 전부가 번역물로 충당되고 있다.

최근 시기에 일련의 출판 기관들에서 약간한 국내 저작 및 편작이 출판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아직도 보잘 것 없는 수준에 처하고 있으며 기타 부문들에서도 명목상은 저작, 편작으로 되여 있지마는 실지 내용은 외국 출판물들을 번역 조립하였거나 그대로 이기한 데 불과한 것이 다수를 점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결부된 내용은 거의 찾아 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적 토대가 아직도 청소한 조건하에서 선진 국가들의 기술 문헌과 기술 도서들의 번역 출판은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당 정책의 요구에 엄격히 립각하여 선후차를 옳게 분별하며 대상을 정확히 선택하는 문제가 해당 부문 출판 기관들 앞에 나서는 응당한 과업으로 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문 출판 기관들에서는 이 요구에 극히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제목만 그럴듯하면 덮어 놓고 번역하는 안일한 사업 태도들이 의연히 존속되고 있다.

실례로 《도시 경영 편람 Ⅱ》(건설 출판사 발행)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할 것을 예견하지도 않고 있는 궤도 전차에 대하여 장황하게 서술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도 불필요한 교조주의적 번역 출판이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는바 그 실례로서 김 원기 역 《조립식 철근 콩크리트 부재 생산》(건설 출판사 발행)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1956년에 발간된 중국 책을 번역한 것인데 그 내용은 《철근 콩크리트 부재란 무엇인가》, 《왜 철근 콩크리트 부재 공장을 설치해야 하는가》 등 조립식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개념을 수록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조립식 건설 방법이 광범히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발전되고 있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이와 같은 서적을 구태여 번역 출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일부 우리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으나 그 역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라는 머리'말을 첨가함으로써 독자들 앞에 변명을 하고 있다.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달성되고 있는 과학 기술적 성과와 경험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심한 소극성을 발로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은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로력으로써 생산에서의 거대한 앙양과 함께 도처에서 빛나는 기술적 성과와 혁신을 가져 오고 있다. 이미 철 콕스에 의한 선철 생산과 비날론 및 로초 인견 팔프에 의한 직물 생산 등 국제적으로도 자랑할만한 기술적 성과가 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양에서 제일가는 수풍 발전소의 개건을 비롯하여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들을 건설한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기술 도서들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와 경험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남의 것만 쳐다 보고 자기의 성과에 대하여서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들이 계속 발로되고 있다. 특히 공업 기술 서적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새 기술》 및 《혁신자》 문고는 새로운 기술적 창안과 우리 나라 생산 혁신자들의 창조적 경험을 보급 일반화하는 대중 도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모두 외국 기술 자료의 기계적 번역으로 대치되고 있으며 문장 서술과 활자 사용에서도 대상에 따르는 고려가 돌려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결함들이 결정적으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해당 부문 출판 기관들에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미 제시된 당적 과제들을 소극적으로 집행한 데 있다.

일련의 출판 기관들에서는 당 중앙에서 진행된 총화 사업 이후 지난 날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할 대신에 《우리 출판사 책에 대해서는 적게 지적되였으니까 괜찮다》느니 《기술 도서들에서는 사상 정치적 문제가 별로 없다》는 등의 부당한 구실하에 형식적으로 책임 한계나 따지는 것으로써 만족하였었다. 해당 출판 기관에서 관심만 하였다면 능히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오유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특히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 사업이 당 정책과 현실적 요구로부터 유리되고 소극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는 중요한 원인의 또 하나는 해당 출판 기관 책임 일'군들이 당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 현실에 접근할 줄 모르며 단순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수입 도서 목록이나 개별적 집필자들과의 안면 관계 등으로 안일하게 사업하는 데 있다.

앞으로 공업 기술 부문 도서 출판·사업이 사회주의 건설과 기술 혁명의 우렁찬 진군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출판 일'군들과 집필자들 속에서 낡은 것을 고집하고 전진 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의 사상적 근원들을 철저히 소탕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업에 복무하는 전체 일'군들이 당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출판 사업에서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 적극적 투사로 한결같이 나설 때에 제반 결함은 극복되고 사업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해당 출판 기관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과 현실적 요구에 정통하며 자기 출판사가 발행하는 일체 도서 내용에서 당적 요구를 관철시킴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부문 생산 직장들과 과학 연구 기관 및 광범한 생산 실천자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집필자진을 계통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필자들의 당적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기술 도서라해서 어려운 술어나 단어들로써 장황하게 라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통속적이며 생동적이고 함축성 있는 원고를 집필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출판 지도 기관들과 공업 경제 기술 부문 각 성 및 중앙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적 방조가 절실히 기대된다.

정정 10호 41페지 우단 18행 《황해남도 옹진군》을 《평안북도 운전군》으로 정정함

《근로자》 제 11호 (루계 제 156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8년 11월 10일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11월 15일

ㄱ— 90 696　　값 45 원

서 적 안 내

훌륭한 로동당원이 되기 위하여

4×6판, 예정 페지 70페지, 예정 값 17원,
발행 부수 50,000부, 발행 예정월 11월.

이 소책자는 매개 로동당원들이 훌륭한 당원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참고서로서 당원들의 일상적인 당 생활 및 본신 사업과 사생활면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또한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당 결정 지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하히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공장과 농촌의 일반 당원 대중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서술한 서적으로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실제적인 산 자료들을 분석 체계화하였으므로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당원 대중에게 많은 방조가 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4×6판, 예정 페지 70페지, 예정 값 28원,
발행 부수 14,000부, 발행 예정월 12월.

이 책에는 1945년 8. 15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방책과 그를 추진시키기 위한 조선 로동당의 시종일관한 투쟁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로동당 투쟁사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된다.

이상 책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58년 11월.